

夫人行蹟追篆其下方實立此碑者仲子商學時守白川郡云

崇禎庚子四月 日

崇祿大夫議政府右贊成兼判義禁府事成均館祭酒宋時烈記

子文學敬書

昔在己卯冬舜舉等請撰先考誌于清陰金文正公庚辰燔石而埋之墓前石底辛卯春復請碑文于公公曰余於前日朝夕視晷故已爲備述於玄石今余病矣不任屬草且余於外家事亦以一篇兩用於幽顯爾其識之未幾公下世乃今治石而仍用此文者寔遵公教也先考官止通政以南漢扈從賞加嘉善資而下批及壙後時有礙故墓誌與表皆無得以書之諸議以爲準格立碑則二品官階不容不書故始加諸行職之上焉先妣事實未及登載於原文玆又請宋尤庵爲後記凡此顛末不可不傳而子姓孫曾亦有未載者謹復具列于石之兩旁云助舉娶觀察使崔沂女一男朴正言再娶經歷李長亨女一男摠生員二女婿李相夔朴尙綱妾女婿李稔舜舉郡守娶觀察使李春元女二男哲檢閱摠生員商學娶察訪李敬培女一男播三女婿金碩昌李慶萬生員崔載翁再娶安瑱女一男杼一女幼文舉娶李瑑女二男搏掄五女婿李舜岳崔世慶李顥生員沈楷末未行成學年十七未娶而殤宣舉娶生員李長白女二男拯推一女婿朴世埜妾男撥拙李正興早卒有繼子敏迪校理權僞郡守三男恕志愍五女婿朴銑生員成一童餘未行民舉娶縣令洪植女三男拱挺揔四女婿崔全斗女幼耕舉娶參判申鑑女二男撞揔四女幼時舉進士娶判書閔聖徽女未育再娶縣令李榮義女三男摠捷揔三女婿金壽稱餘幼崔魯詹一女婿李久松生員朴三男三女敬教誠教俱進士明教婿李寬餘幼揔一男正教二女哲三男一女道教德教知教婿權在衡摠一女搏一男殷教二女掄一女拯二女推二男自教可教敬教一男一女誠教二女皆幼

却藥不御遺命就先兆薄葬歛用士服勿飾墓四禮一遵平日訓書至六月四日易簀于正寢春秋六十九病時諄諄若吟嚙旁人諦聽皆古人歎世傷時之語其惓惓憂國之意至死尤篤忠義之性出於天者蓋如此子舜舉等祇命是年八月十九日窆于尼山縣北先墓後辛向之原公爲人莊重簡默終日不設情容及至接人溫然謙卑長者少孤事母甚謹共養腆備推以待昆弟姊妹加於人數等長子以公道授官公舍子舉弟以悅親意於宗族故人之貧窮者曲加撫卹所居州郡節省致足斥其餘以代民役而終不視德米穀魚鹽簿書井井吏不得容其奸以至館宇橋梁饗餼之具賓旅所待以周者咸無廢公雅不喜赫赫聲而考績常爲一道取言未嘗極人過失至論義理之辨先定於內奮不顧身雖人主之威亦不能奪當急遽造次之際精魄益壯發謀出慮高於平日慷慨揮涕觀者竦動爲文根柢道理遇事論列辭直理明一時號以文詞稱者有不如也平生所爲章奏切於君德時要者甚多顧余不能盡載然見其槩亦足以知公也嗚呼賈長沙陸忠州俱不究所蘊自古而然於公獨何憾焉必有任其責者矣公有六男二女長勛舉縣監次舜舉教官以公命出後伯父商舉奉事文學校理宣舉進士女壻李正輿權僞俱中司馬側室三男一女民舉進士耕學生員次時舉女爲判官崔魯詹妾縣監子曰扑搥教官子曰哲摺奉事子曰播校理子曰搏掄進士子曰拯推子姓兄弟文學行誼多有過人者人知公之後必將大顯以蕃而成公未伸之志也銘曰

我 宣祖之後二十餘年當中國崇禎之世有賢大夫太師之裔身姓尹時之不淑履否運發憤忘身盡忠謇衆圓獨方擯以殞魯城之丘從父藏長夜冥自耿光江河不廢名與長

子舜學敬書

成夫人嘉靖壬申四月九日生十九歸于公夫人生長禮法之家性又莊淑事姑慶夫人盡其孝慶夫人甚安之公晚甚通顯慶夫人固在食其祿夫人專務承順親表貴賤其至如歸而酒食唯命未嘗言有無公爲承旨及府尹夫人一皆視秩啓封諸子又連倫而進夫人愈自謙約紡績紵紉未嘗去手公兄弟五人姊妹二人姪甚衆異姓咸萃其細庶不同而夫人均有恩禮七門之聚無有怨議不滿者公歿逾月長子繼逝夫人重憂致哀十年如一日崇禎戊子出後子舜舉官安陰其九月二十九日夫人卒于縣舍將葬啓公墓有泉漳之患遂奉柩十二月三日合葬于尼山縣西長久洞去先府君葬三里而近長子勛舉墓在其前竊惟人家興運將至則必有賢婦人輔佐君子教戒子孫以成模範既而鄉黨承其化世道有所賴茲豈但家運之所關哉朝廷以諸子御訓趾美爲摺紳楷範今 上初陞文學爲大憲宣舉爲司業足爲一時之光其孫曾皆有文行茲蓋公之所貽以亦豈夫人之教使然也清陰文正公既書公事于墓碑故略取

司諫極言其非計請斬倡義去頒者命世子分朝策應議不行寇深上幸江都公從行大臣勲貴多側目視公者而公論議益謝勵不少屈虜使劉海等來求盟上召公卿臺諫議之李貴崔鳴吉皆言不可不從公極言和不可恃引宋注黃事以折之上意與鳴吉合竟用其言公退與同僚抗論請鳴吉禦魅降將弘立蘭英等導虜反噬斷頭號令皆不省公慷慨不已復上疏曰今日之事名爲和而其實降也終有必亡之道等亡無寧決戰請亟斬主和誤國之臣逗撓奔潰之將又斬虜使而回賂胡之物犒賞三軍激勵人心上怒下教尹某疏中降字兇慘問啓公正言直對上愈怒命奪職編配政院封還內旨三司交爭上亦悟命仍其職公再辭乞遞會臺諫之簿時事者美公而惡勲柄其人前既御未發因此欲兩中之危言激怒上亦內不善以其名臣置之公謝病歸鄉里無何復拜舍人適有不獲己者僂俛還朝李仁居誅上見其檄文入毀言疑公諫疏爲崇亟下嚴旨公移病自免久之以御史暗行西關窮邊險要無不遍歷悉陳撫民固圉之道還拜司諫用薦者除吉州牧使銓曹請例加不許命移安邊言路爭之留備補拾拜司成太僕正屢改應教舍人輔德執義論宮禁不嚴上命褫職辱復邇列擢同副承旨序陞右副明年拜吏曹參議乞暇上塚還爲大司成移兵曹參議明年力求補外得全州府尹首以寬民力爲務罷不急之役量田使者意在增賦公不從田與賦相左者一正之州人刻石頌德公素患目眚自南歸決意休退再以諫職召皆不赴丙子遭王妃喪力疾就列上哀傷踰節久不視朝公以爲國事岌岌宜日接臣鄰講求治道一日引對公又申前疏土簋短褐等語承旨李敬輿亦勸上振作異以感動左右有以誹諧戲侮者公卽舉劾上以災異命停月膳藩臣上疏請復勲戚大師營私蠹公公亦劾之由是不悅者滋多謗口誼譁公累章乞遞至十二月義州告焉書至不三日虜騎已到西郊上倉黃欲幸江都不及入南漢山城公病執聞之與一子馳赴大臣以下錯愕失措公言于體府請先輸近城倉粟發輕騎急運武庫兵器不能用先是虜使持至僭號書上與廟堂定議斥之是虜欲得當時主是議者以試我於是用事之人乘時圖逞喜得圈套平日清論之攻己者睚眦已上欲盡置其中網絡張設無遺力乃陰力喉諸營使兵士露刃宮門以脅之又矯內旨迫令自首頗有濫及公上疏待命又往體府奮言以身自當口號韻語與同舍相訣親故聞者多來哭別寄書諸子處後事夷然若他日會臺諫叩閣請中覈上可之遂以尹集吳達濟二人爲應公及諸人得脫虎口矣迨上自虜營還都倖相悍弁仇視士類計將魚肉之觀上意不果尋命大臣加罪同譴者十人公爲首目以語涉不詳始命遠竄言路力救止配中道公既至配所不與外人交深居杜門仰屋長嘆而已之冬下教放釋然非德音也公不敢歸家越境俟命明年秋始還尼山丙舍爲終焉計或勸稍近京輩且令諸子赴公車以避疑謗公曰七十之年兩目不見復何所覲謂諸子無以我故易志死生禍福命也終不動及聞朝廷有助兵之舉自此絕不問時事牢臥一室足不出戶庭五月感疾

歸若不甘言愚我必鳴張豕突懼我以兵不及此時竭力自強一朝倉猝終未免聽其所爲則今日之抗義適足爲空言實禍之歸今之急務莫先於輕徭溥賦慰悅民心臣之前疏所陳者是也願 殿下亟下哀痛之敕使八方曉然知 殿下大有爲之志然後親御國門日討軍實而申儆之勿復爲燕安姑息之計所撓奪也八月又上筍曰臣之前日所言陰雨之備也今則禍機已迫燃眉之急也請 殿下先發宮掖近習之少壯者次發宗室百官之才俊者次發儒生次發吏胥次發市民次發公私賤則國都之中可得數萬人四方選兵亦用此道先發豪門盛族後及小民則孰敢怨咨孰敢規避如是則十數萬精兵不勞可得罷備邊司而去遙制之害撤江都之備焚行宮而進駐平壤以示必戰無退避之意則忠義之士簞糧景從兵不徵而自集食不求而自聚軍容盛壯風采立變孰與畏約無窮卒以禍終哉此皆人所不敢言而公獨盡言不諱其終始懇懇之誠不啻墮肝瀝膽而聽之邁邁訖無見行是年冬虜果傾國入寇國家之辱生民之禍盡如公言尙不悔悟乃有訾公先爲不祥語以識大禍者嗚呼人也非天也公諱煌字德耀八松其號也高麗太師莘達之後五世至文肅公瓘寔生文康公彥頤仍父子有大名屢書國史文康後十三世至公高祖倬久長國學成就弟子甚多盖自太師以來殊勳大科奕世貴顯者十有八公世數三韓名族必舉尹氏爲右曾祖先智忠清兵馬節度使祖諱暉考諱昌世皆不仕後以公貴贈大父左承旨父吏曹參判母曰貞夫人清州慶氏副提學渾之女隆慶辛未生公弱不好弄嶷嶷有度及長委禽於牛溪成先生之門飭勵不懈先生重之癸巳父憂廬墓二十七擢文科選補承文院權知副正字久之兼居山道察訪本職如故輔成均館典籍遷司憲府監察改刑曹佐郎又改司諫院正言兼春秋館記事官學劾不避親故病辭還典籍歷兵禮刑三曹佐郎壬寅左遷水原判官明年罷歸無何敍還禮曹陞正郎兼記注官時統營須強佐銓曹舉公爲從事陽言遶束而實遠之也無何拜北青判官居二年所凡利害無不興廢者戊申解歸明年又出爲靈光郡守郡太劇難剗公至期年積案如洗率邑子弟興于學行養老禮親奉母兄上下同樂人大悅喜及去郡人追思碑之歷成均館直講奉常僉正軍資監正丙辰公之長子連繫誣告獄坐罷公見時事大變退歸鄉曲不跡於朝癸亥今 上卽位起拜司憲府掌令時有廢世子按律之議公持不可自免去遂得朔寧郡守適有公格不赴拜軍器寺僉正司宰監正無何還掌令陞執義錄入玉堂爲修撰校理副應教移司諫又還應教明年正月李适叛 上幸公州檢察使辟公從事先行至公州仍留行在御營使李貴注視江防望賊旗先遁軍遂大潰貴方負功自擅 上亦倚重言路厪厪請罷其副將公上筍力爭貴軍法人人無不竦然聳聽然公之後來枳仕塗實由此始焉賊平扈駕還都移議政府檢詳爲舍人司諫者俱再秋丁母憂丙寅服闋拜司成復移司諫又移輔德胄筵狃習漸懈公每當進講勸戒切至 世子甚敬憚是後遷改不出經幄宮僚之任補益弘多丁卯西虜大入邊廟堂請棄都城以避之公爲

* 尹煌墓碑

(篆額)

大司諫尹公墓碑銘

(碑文)

有明朝鮮國嘉善大夫司諫院大司諫尹公墓碑銘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金尙憲撰
嘉善大夫行司諫院大司諫兼同知成均館事金壽恒篆

故大司諫八松尹公者坡平人剛毅有大節自少力學篤行常懷經世志數上書論事皆國家所以安危在亡之故然終於無所合以卒余嘗論天之生材若有意於用世而合者少不合者多或始進而終攘或貌悅而心忌生不能益於時死乃有名於後仰何歟不肖之徒懷奸誤國而處高位享厚祿者肩相磨獨賢者忠者常疏遠不親而反有視之若仇怨嗚呼豈盡天意耶崇禎九年二月公遇災上疏其略曰今日之天怒極矣舉國之人遑遑汲汲而 殿下深居九重群臣無敢見者上下沓沓莫之知懼自古安有如此而國不亡者乎夫承弊政者不加守常道拘小節者不能成大業今日若不大警動大作爲痛革因循之習則必無救於亂亡之禍也臣前日請停 廟樂非不知廟樂之難撤然而必廟樂爲言者廟樂旣撤則 御膳必不求甘御服必不求美內努內需不得不出宦官宮妾不得不減進上可罷貢獻可除推此以往則百爲浮費一切蠲省而轉危爲安在此一着也何以言之今日晷存之策只在保民與養兵 祭享御供一倣中朝之制罷外貢而市買以用如太官之瓷窯漁箭尙方之織造工作並皆停罷以法土簋藜羹短褐之盛德宮嬪板房用復故制以省收布供薪之費此外凡所以節儉省約者皆自 聖躬始內以勳戚所占公田山澤之利諸司大小私俸之濫一歸之度支外而各營列郡暴斂充費苞苴饋獻之類次第釐革則財用有道而民得蘇息矣臣聞八道墾田五十餘萬結度支歲賦米不下十四萬碩恒費居三之二用其仂以代常貢必有餘裕稅外凡徭旣盡除然後一結田賦五斗米一匹布以爲養兵之資食不足不患矣又就諸道軍額簡其精銳擇其將領贍其衣食習其技藝明其賞罰勝兵可得十萬兵不足不亦患矣三月又上疏曰醜容肆然以惡逆加於我旣不售而

전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자손과 증손도 미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있어, 삼가 다시 비의 양측에 갖추어 기록하였다. 윤거는 관찰사 최 기의 따님을 취하여 아들 변을 두니 정언이고, 재취하니 정력인 이장형의 따님을 취하여 아들 현을 두니 생원이고, 두 딸은 이상기와 박상경에게 출가하고, 첩의 딸은 이 부에게 출가하였다. 순거는 군수니 관찰사 이춘원의 따님을 취하여 두 아들을 두니, 검열인 석과 생원인 진을 두었다. 상거는 찰방 이경배의 따님을 취하여 아들 파와 세 딸을 두니, 사위는 김창석, 이경만은 생원이고, 최재웅이다. 재취는 안 진의 따님인데 아들 자와 딸하는 어리다. 문거는 이연의 따님을 취하여 박, 윤 두 아들을 두고, 다섯 따님을 두니 사위는 이순악, 최세경, 생원인 이웅, 심해이고 막내는 미혼이다. 성거는 나이 17세에 장가들기 전에 죽었다. 선거는 생원 이장백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 증과 추를 두고, 딸 하나는 박세후에게 출가하였다. 첩의 아들은 발과 줄이요, 이정여는 일찍 죽고, 양자로 교리 민적이 있다. 권준은 군수인데 3남 공, 정, 등을 두고, 네 딸을 두니 사위는 최전우이요, 나머지는 어리다. 경거는 참판 신감의 따님을 취하여 2남 근, 간을 두고, 네 딸을 두니 어리다. 시거는 진사인데 판서 민성취의 따님을 취하나 자녀가 없고, 재취하니 현령 이영의의 따님을 얻어 3남 강, 건, 충을 두고, 삼녀를 두니 사위는 김수칭이요, 나머지는 어리다. 최노침은 1녀를 두니 사위는 이구송인데 생원이다. 변은 3남 3녀를 두었는데 경교, 성교는 모두 진사요, 명교이고, 사위는 이관이고, 나머지는 어리다. 현은 아들 정교와 두 딸을 두었다. 석은 3남 1녀를 두니, 도교, 덕교, 지교이고 사위는 권재형이다. 진은 딸 하나를 두고, 파도 딸 하나요, 박은 아들은 은교와 두 딸을 두고, 윤은 딸 하나를 두고, 증은 두 딸을 두고, 추는 두 아들 자교, 가교를 두고,

경교는 1남 1녀를 두고, 성교는 두 딸을 두니 모두 어리다.

(역 주)

- ① 御膳(이선) - 임금의 식사, 수라.
- ② 御服(이복) - 임금의 의복.
- ③ 內帑(내탕) - 임금의 사사로운 재산.
- ④ 內需(내수) - 궁내에서 쓰는 곡물이나 의류등의 물품.
- ⑤ 進上(진상) - 지방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침.
- ⑥ 貢獻(공헌) - 공물을 상납하는 것.
- ⑦ 太宮(태궁) - 왕의 수라를 맡은 관원.
- ⑧ 尙方(상방) - 상의원, - 왕의 의대와 보물을 관리하는 관아.
- ⑨ 筓子(차자) - 간단한 서식으로 올리는 상소문
- ⑩ 司諫(사간) - 조선조 사간원의 종2품 벼슬.
- ⑪ 司成(사성) - 조선조 성균관의 종3품 벼슬.
- ⑫ 輔德(보덕) - 조선조 세자 시강원 보덕 이하 관원 총칭.
- ⑬ 冑筵(구연) - 서연의 별칭. 왕세자 강론하는 곳.
- ⑭ 去邪(거빈) - 옛날 주나라가 빈을 버리고 거산으로 옮긴 것.
- ⑮ 公卿(공경) - 3경과 9경. 고관의 총칭.
- ⑯ 臺諫(대간) - 사헌부, 사간원의 벼슬 총칭.
- ⑰ 反噬(반서) - 기르던 짐승이 은혜를 잊고 해침.
- ⑱ 犒賞(호상) - 군사를 위로하고 상을 줌.
- ⑲ 銓曹(전조) - 이조, 병조의 총칭.
- ⑳ 太僕正(태부정) - 사복시의 벼슬. 왕의 가마, 마필을 맡은 관원.
- ㉑ 體府(체부) - 조선 체찰사의 駐營. 체찰사 - 지방에서 군란이 있을 때 왕을 대신하여 그 지방에 나가 군무를 총괄하는 군직. 재상이 겸함.
- ㉒ 德音(덕음) - 임금의 말씀. 도리에 닿는 착한 말.
- ㉓ 賈長沙(가장사) - 가의의 호가 장사. (BC200-168) 전한시대 문인
- ㉔ 陸忠州(육충주) - 당나라 문인 陸贄(육지)는 字가 敬輿이고 18세에 진사가 되고 한림학사로서 朱泚가 난을 일으켜 천자를 모시며 하루에 수 백 통의 조서를 작성하였다. 평장사에 이르렀는데 시기하는 자가 있어 참소를 당해 충주로 귀양 가서 거기서 죽었다. 충신인데 불우한 생을 마쳐 사람들이 육충주라 불렀다.

아들 순거 삼가 비문을 필사하다.

(추 기)

성부인은 가정 임신 4월 9일에 출생하여 공에게 시집오다. 부인은 예와 법도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성품이 씩씩하고 맑아서, 시어머니 경부인을 섬기는데 효성이 지극하여 경부인이 심히 편안했다. 공이 만년에 벼슬이 높아졌음에도, 경부인은 굳이 늙으로 받은 곡식만 들고, 부인도 오로지 이를 이어 받았으며, 친척이나 귀한 손님과 친한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술이나 식사를 차리라고 하여도 일찍이 있고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공이 승지와 부윤이 되었을 때에도 부인은 하나같이 그 직책을 보아 할 일을 봉하였다. 또 이어서 여러 아들들이 승진하니 부인은 더욱 스스로를 겸손히 하고 검소하며, 길쌈과 바느질을 계속하였다. 공의 형제는 다섯이요 자매는 둘이요, 자질들이 심히 많아서 내외손을 모두 모으면, 크고 작은 것이 서로 다른데도, 부인은 모두 은혜와 예로 대하여, 일곱 집이 모두 모여도 원망하거나 불만스런 말이 없었다. 공이 돌아간 후 한 달 만에 장자가 이어서 돌아가니 부인은 거듭되는 상사를 만나 10여년을 하루같이 지냈다. 송정 무자년에 양자 간 아들 순거가 안음 현감이 되었는데 9월 29일에 부인이 임지 관사에서 돌아가서, 장례를 모시려고 공의 묘를 열어보니 물이 차 있어 걱정이었다. 드디어 운구하여 12월 3일에 노성 서쪽 장구리에 공과 합장하니, 선부군 묘와는 3리가 떨어져 있고, 장자 순거의 묘는 가까이 앞에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집안이 흥하려면 반드시 어진 부인이 있어 남편을 보좌하고 자손을 가르치고 엄하게 해서 모범을 보이고, 이어 그 고을이 교화를 받고, 세상의 도리가 힘입은 바 되니, 이것이 어찌 가운데만 관계된다 하겠는가. 조정에 나간 여러 아들들이

왕의 훈계를 잘 받들고, 행실이 아름다워 모든 신하들의 모범이 되었다. 선조 초에 문거는 대사헌이 되었고, 선거는 국자감 교수로 승진하여 한 때의 영광이 되었다. 그 손자, 증손이 모두 문장과 행실이 좋았으니, 이는 공에게서 나왔으나, 어찌 부인의 가르침과 돌봄이 아니겠는가. 청음 문정공께서 이미 공의 사적은 묘비에 기록했기에, 부인의 행적을 대략 모아서 비문 뒤에 추가로 세운다. 이 비를 세운 이는 실은 둘째 아들 상거니, 그 때 백전 군수이었다.

송정 경자 4월 일.

아들 문거 삼가 쓰다.

(추 기)

지난 기묘년 겨울에 순거 등이 선고의 묘지명을 청음 김문정공에게 부탁하여 글을 짓고, 경진년에 석판을 구해 새겨, 묘전의 돌 밑에 묻고, 신묘년 봄에 다시 공에게 비문을 청하니 공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조석으로 해그림자를 보면서 이미 현석에 기술했는데, 이제 내가 병이 있어 부탁 받은 비문 초안을 맡을 수가 없다.」 하였다. 「또한 내가 외가의 일에 한편으로는 생존시와 돌아간 후에 두 번 쓰는 것이라.」 하더니, 비문을 쓰고서 얼마 후에 공이 돌아갔다. 이제 돌을 다듬어 이 글을 그대로 쓰는 것은 공의 가르침을 따름이라. 선고의 벼슬은 통정에 그쳤으나 남한산성에서 호종한 것으로 해서, 포상으로 가선대부의 계직을 더하고, 비답을 내렸으나 묘소에 이르러서는 절림이 있어, 묘지와 묘표에 모두 이것을 쓸 수 없었다. 여럿이 의논하기를 품격에 맞추비를 세운다면 이품의 관직을 쓰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행직에 높은 것을 더하였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실은 원문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또 우암에게 청하여 후기를 하였는데, 이 모든

곧게 누워, 발걸음을 집 뜰에도 내딛지 아니하였다. 5월에 감기에 걸렸으나 약을 물리치고 먹지 않으며, 유언으로 선영에 묻기를 말하고, 장사절차는 간소하게 하고, 염습할 때 선비의 복으로 하고, 무덤은 꾸미지 말고, 4례는 평소 가르친 대로 따르고 하였다. 6월 4일 집 안방에서 돌아가니 향년 69세이었다. 병중에 조용하고 온순하게 잠꼬대처럼 말하는데 옆의 사람이 들어보니, 모두가 옛사람이 세상을 탄식하고, 시국을 걱정하는 말이였다. 그 삼가고 삼가며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더욱 도타우니, 충의로운 성품이 하늘에서 나온 것 같았다. 아들 순거 등이 그 해 8월 19일에 노성현 북쪽 선영 산소 뒤 신향 언덕에 장사하였다.

공은 사람이 되어 장중하고 과묵하며, 종일토록 게으른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접할 때는 따스하고, 어른에게는 겸손하고 공손하였다. 젊어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섬기기를 심히 조심스럽게 하고 공양함에 후하게 하며, 형제자매를 남다르게 대하였다. 장자가 공의 공로로 벼슬길에 나가게 됐는데, 자식을 제치고 아우를 천거하여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하였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곤궁하면 구휼하여겨 도와주었다. 주와 군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절약하고 아껴서 넉넉함을 이루고, 그 여력으로 백성들의 노역을 대신하면서 공덕을 보이지 아니하고, 쌀과 어염의 문서가 깨끗하고 정당하여, 아전들의 간악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관사의 관리, 교량 안전, 생활 도구, 손님 접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밀하여 버릴 것이 없어, 공은 평소의 좋은 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적을 따져보면 도내에서 제일 으뜸이 되었다. 말함에 남의 과실은 과격하게 아니하고, 논변에서는 먼저 안으로 분발하고 몸에 구애하지 아니하여, 이를 임금의 위엄이라도 빼앗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급한 일을 당하여도 정신과

기백이 더욱 씩씩해지고, 지혜와 생각이 평소보다 뛰어나고, 강개하여 눈물 흘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었다. 문장은 도리에 근본을 두고, 일을 만나 의논을 할 때 논리가 정연하고, 말할 때 이치가 분명하여 한 때 문장으로 불리었으나 같지 않음이 있었다. 평생에 임금에게 올린 글이 왕의 덕치와 시국의 요체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심히 많았다. 돌아 보건데 내가 능히 여기에 다 신지 못하나, 그러나 그 대개를 보면 족히 공을 알 수 있다. 오호라! 가장사^㉔와 육충주^㉕도 모두 의혈 일을 다 강구하지 못했다. 옛날도 그러했는데, 공에게 홀로 무엇이 유감스러우랴. 반드시 그 책임을 진 자가 있을 것이다. 공은 6남 2녀를 두었으니 장자 윤거는 현감이고, 차남 순거는 교관이나 공의 명으로 백부에게 양자가고, 상거는 봉사이고, 문교는 교리이고, 선거는 진사이며, 사위는 이정여, 권준인데 모두 사마시에 급제하고, 측실에서 3남 1녀를 두니 민거는 진사이요, 경거는 생원이요, 다음은 시거이고 딸은 판관 최노침의 측실이 되었다. 현감 윤거는 아들은 변, 현이요, 교관 순거의 아들은 석, 진이요, 봉사 상거의 아들은 파요, 교리 문교의 아들은 박, 윤이요, 진사 선거의 아들은 증, 추이다. 자손, 형제가 문학과 바른 행위가 남보다 뛰어난 자가 많으니 남들이 공의 후예가 반드시 장차 크게 나타나서, 번성하고 잘 되어 공이 다 퍼지 못한 뜻을 이룰 것을 알았다. 명하노니,

선조임금 이후 20여년은 중국 송정의 세상을 당하여 현대부가 있었도다. 그는 태사의 후예로 성은 윤씨인데 때가 막지 못해서 불운을 겪었도다. 몸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스런 직언을 다하고, 못사람은 등글게 사나, 공은 모가 저서 목숨을 다하는데 이르렀다. 노성의 언덕 선영에 장사하니, 긴긴밤 어두움을 홀로 밝게 빛내리라. 강과 하수가 마르지 않듯, 공의 이름은 영원하리라.

힘써 구하여 전주부윤을 얻었다. 가서 제일 먼저 세금을 덜어 백성의 살림을 너그럽게 하고, 급하지 않은 부역은 면해주고 양전을 짓는 사람에게 더 부과하려는 것을 공은 따르지 않고 밭과 세금의 균형을 바로잡으니, 고을 사람들이 돌에 새겨 덕을 칭송하였다. 공이 평소에 눈병을 앓았는데 남쪽에서 돌아와 휴식하고 퇴직을 결심하였는데, 다시 간관으로 불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병자년에 왕비상을 당하여 힘써 빨리 달려가 반열에 참여하였는데, 왕의 애도함이 정도를 넘어서 오래도록 조회를 보지 못하니, 공이 아뢰기를 「국사가 위태로우니 마땅히 날마다 신하를 만나 치도를 강구하소서.」 하니, 하루는 신하를 대면할 때 공이 전에 올린 상소를 또 올려 토기제기와 짧은 옷을 거둬 아뢰니, 승지 이경여 역시 아뢰어 왕이 펼쳐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좌우에서 비방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있어 공이 곧 탄핵하였다. 왕이 재앙의 변이가 있어 좋은 음식을 정지케 하였다. 외직 관찰사가 상소하여 훈척대사들이 사사로운 것을 경영하고, 나라것을 쯤먹는 것을 회복하기를 청하니 공도 역시 이것을 탄핵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공을 기뻐하지 않은 지가 많아지고 비방의 소식도 들려서 여러번 상소하여 전직을 애걸하였다. 12월에 의주에서 급보가 이르렀는데 삼일이 못되어 오랑캐가 이미 서쪽 교외에 이르렀다. 왕이 창황하여 강화도로 행차코자 하였으나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미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공이 이 말을 듣고, 병중인데도 아들과 더불어 달려가 보니, 대신들이 당황하여 조치를 못하고 있었다. 공이 체부②에 청하여 먼저 가까운 성의 창고 곡식을 옹하고, 가벼운 기마를 내어 급히 무기를 운반하라 하였으나, 능히 쓰이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 오랑캐 사신이 참람되게 이름을 지은 서신을 가져오니, 왕이 조정에 나와 의논하여 이를 물리쳤는데, 이는 오랑캐가 당시에 이 의논을 주장한 자를 찾고자 우리를 시험한 것이다. 이

에 권세가가 때를 타서 기뻐할 일을 바치기로 하고 모함하여 평소 애청론으로 자기를 공격한 자가 윗사람에게 눈을 치켜뜨고 기진하여 음으로 여러 군영 장수들에게 지껄이니, 병졸들이 궁궐문에서 칼을 들고 시위하고, 왕의 지령을 밝히려고 수령들에게 자수하게 하니, 그 참람함이 이에 미쳤다. 공이 상소하고 하명을 기다리며 감영에 가서 말로 떨치고 몸으로 스스로 감당하며 입으로는 시운을 읊으며 동료들과 더불어 서로 작별하니, 친척과 친구들이 듣고 많이 몰려와 울면서 작별하였다. 여러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사후의 일을 조치하고 태연함이 평일과 같았다. 사헌부, 사간원에 모이면 임금에게 고하기를 거듭하니, 왕이 옹계여겨, 드디어 윤 집, 오달제 등 2인이 대응하여 공과 여러 사람이 사지에서 벗어났다. 왕이 오랑캐의 병영에서 환도하자 요행한 재상과 사나운 무관들이 선비들을 원수같이 보고, 장차 짓밟아 버릴 것을 꾀하니 왕이 과감히 처단치 못하고 대신에게 명하여 죄를 주니, 귀양간 사람이 10인인데 공이 우두머리였다. 공의 말이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처음에는 멀리 귀양을 명했으나 언로에서 힘써 구원하여 중도에서 유배하는 것이 없었다. 공이 유배소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깊이 문히어 문을 닫고 천정을 쳐다보며 길게 탄식 할 뿐이었다. 겨울이 되어 석방하도록 하고하였으나 덕음②이 아니었다. 공은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지경을 넘어서 기다리다가 명년 가을에서야 노성 병사리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종신할 계획이었다. 어떤 이는 서울로 피하라고 하니, 공이 말하기를 「철십의 나이에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다시 무엇을 바라리오.」 하고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나 때문에 뜻한 바를 바꾸지 말라. 죽고 사는 것과 화와 복은 운명이다.」 하고 마침내 이동하지 아니하였다. 조정에서 병사의 거사를 돕는 일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고 서사를 묻지 않고, 방안에

막힌 것은 실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적이 평정되고 어가를 호위하여 환도하니, 의정부 검상으로 이임하고, 사인과 시간^⑩이 된 것이 모두 두 번이나 되었다. 가을에 모친상을 당하여 병인년에 복을 마치니, 사성^⑪을 배수하고 다시 시간으로 옮기고 또 보덕^⑫과 주연^⑬으로 옮겼는데, 관습이 점점 해이해져서, 공이 때번 강론을 드릴 때 권면하고 경계함이 간단하면서도 극진하여, 세자가 심히 경탄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옮기고 고침이 경연관과 동궁 관료들의 보임에 벗어나지 아니하여 돕고 보탬이 크게 많아졌다. 정묘년에 서쪽 오랑캐가 대군으로 변방을 침입하니, 조정에서는 도성을 버리고 피할 것을 청하나, 공이 시간이 되어서, 그것이 잘못된 계고임을 극진히 말하여, 거빈^⑭을 주장한 자를 참수할 것을 청하였다. 세자를 명하여 조정을 둘로 나눌 계획을 있었으나 실행치 못하고, 도적이 깊어 들어오니, 임금의 강화로 행차하였다. 공이 따라갈 때, 대신들과 훈구 귀인들이 많이 결논으로 공을 바라보았으나, 공은 개의치 않고 더욱 격렬한 논의를 하였다. 오랑캐가 사신 유해 등을 시켜 동맹하기를 구하니, 왕이 공경^⑮과 대간^⑯을 불러 의논하니, 이귀, 최명길^⑰이 모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 공은 극진히 화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송주황의 고사를 들어 그것을 꺾으니, 왕이 최명길과 더불어 합의하여, 마침내 그의 말을 쓰게 되었다. 공이 물러나와 동료와 더불어 항변해 논하여 청하기를 최명길은 도적을 막다가 항복하고, 홍립과 난영은 오랑캐를 인도하여 반서^⑱케하니, 이들에게 참수하라는 호령을 내리소서 하니, 모두 살피지 아니하였다. 공이 의분을 참지 못하여 다시 상소해 말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명목상으로는 화친이나 실체는 항복입니다. 마침내 망하는 도리가 반드시 있으니, 결전을 없이 어찌 망하겠습니까. 청컨대, 서둘러,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 일들을 그릇친 대신과 머뭇

거리다 도망간 장수를 참수하고, 오랑캐의 사신을 참수하고, 오랑캐에게 줄 물품을 돌려서 삼군에 호상^⑲하시어 인심을 격려하십시오.」 하니, 왕이 노하여 하교하기를 「윤모의 상소문 중에 항복이라는 말은 흉하고 참담하다.」 하고 문계하자, 공이 바른 말로 직언하니, 왕이 더욱 노하여 관직을 삭탈할 것을 명하고 귀양 보내라 하였다. 정원에서는 봉한 교지를 돌려보내며 삼사에서 교대로 간하니, 왕이 깨닫고 그 직책을 그대로 두라고 하였다. 공이 두 번 사양하고 체직할 것을 빌으니, 대간에서 시사를 모으는 자가 공을 아름답게 여기고 공훈으로 얻은 권세자를 미워하더니, 그 사람이 전에는 주장하지 못했다가 양방에 맞는 위험한 말을 격앙하게 말하니, 왕은 속으로는 언짢으나, 그가 명신이므로 논하지 아니하였다. 공이 병으로 사양하고 향리로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다시 사인을 배수하였다. 이미 언지 못한 것이 있어 억지로 조정에 돌아오니, 이인거가 이미 배임을 당하였다. 왕이 그 격문을 보고 입조하여 공을 험뜯어 말하면서 공이 올린 상소가 원인이 되었다고 의심하여 급히 엄한 지시를 내리니, 공이 병으로 스스로 그 직을 그만두었다. 오랜 후에 어사가 되어 관서로 압행할 때, 궁벽진 오지와 험준한 길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을 어루만지고 변방을 편안히 하는 도리를 진술하였다. 돌아와서 사건을 배수하고, 추천하는 이가 있어서 길주 목사를 제수하였는데, 전조^⑳에서 관례에 따라 명을 허락지 않을 것을 청하여, 안변으로 옮기니 언로에서 보습하기를 대비하다가 사복과 태복^㉑을 배수하고 여러 번 응교, 사인, 보덕, 집의 등을 맡았다. 궁궐의 법도가 엄하지 않은 것을 논하니, 왕이 명하여 직책을 바꾸게 하고 다시 반열을 찾아서 동부승지에 박탈하고 차례로 우부승지에 승진하였다. 명년에 이조참의를 배수하고 휴가를 얻어 묘에 참배하고 돌아와 대사성이 되고, 병조참의로 옮겼다. 명년에 외직에 나갈 것을

상서롭지 못한 말을 해서 큰 화가 되었다고 하니, 오호라! 이는 인간의 일이요 천운이 아니었다.

공의 이름은 황이요 자는 덕이요 팔송은 그의 호이다. 고려대 사신달의 후예이다. 5세인 문숙공 관은 문강공 언이를 낳았는데 부자가 나랏에 큰 이름을 얻어 여러번 국사에 기록되었다. 문강공 후 13세인 공의 고조 탁에 이르러 오래도록 국학의 어른으로 제자들을 길러내니 그 수가 심히 많았다. 대개 태사 이래로 뛰어난 공훈과 대과의 급제와 세상을 빛내는 현달한 분이 18분이다. 공의 세대에 삼한의 명족을 손꼽을 때 반드시 윤씨를 들어 제일로 하였다. 증조 선지는 충청도 병마절도사이요, 할아버지는 돈이요, 아버지는 창세이니 모두 벼슬을 하지 않았다. 뒤에 공이 귀하게 되어, 할아버지는 좌승지로, 아버지는 이조참판으로 증직하였다. 어머니는 정부인 청주 경씨이니 부제학 혼의 따님이다. 윤경 신미년에 공을 낳았는데 약하면서 희롱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의젓하여 법도가 있었다. 차차 자라서 우계 성 선생의 가문으로 장가들어 도리를 닦고 공부에 힘써 게으르지 않으니 선생이 중히 여겼다. 계사년에 아버지 상사를 당하여 시묘를 살았다. 27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선발되어 보직하고 부정자를 잠시 맡았다가, 오래지 않아 거산도 찰방을 겸하면서 본직은 그대로 하였다. 성균관 전적으로 옹고 사헌부 감찰로 전직하고, 다시 형조좌랑이 되었다가, 사간원 정언으로 옮겨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였다. 탄핵을 당하여도 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병환으로 사양하였다가 전직의 직책을 받고 돌아와서 병조, 예조, 형조의 삼조 좌랑을 역임하였다. 임인년에 수원 관관으로 좌천되었다가 이듬해에 파직되어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예조에 돌아가 정랑으로 승진하고 기주관을 겸하였다. 당시 통영에서 강직한 보좌관이 필요했는데 전조에서 공을 천거하여 종사관이 되었는데, 실은 선

발됐다기보다 그를 멀리 하고자 한 것이다. 얼마 후에 북청 관관이 되어, 2년을 지내면서 이롭고 해로운 바를 일으키고 폐하지 않음이 없었다. 무신년에 해직되어 돌아오고, 이듬해에 다시 나가 영광 군수로 나갔는데, 군내가 너무 어려운 일로 가득 차,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공이 부임하여 일년 안에, 그 동안 쌓였던 안건을 말끔히 해결하였다. 온 고을 젊은이들이 배움에 힘쓰고, 노인을 봉양하고, 부모에게 예를 다 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잘 받드니, 상하가 다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다 크게 기뻐하였다. 급기야 떠나게 되니, 군민이 일어나 추모하는 비를 세웠다. 성균관 직강, 봉상시 첨정, 군자감정을 역임하고 병진년에 공의 장자가 무고죄로 연계되어 옥에 갇히고, 공이 해직되었다. 공이 사회가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물러나 향리로 돌아와서 조정에 나가지 아니 하였다. 계해년에 금상이 즉위하자 사헌부 장령으로 기용되었다. 당시 폐세자에 관한 율례를 조사하려는 의논이 있을 때, 공이 불가함을 지지하고, 스스로 직을 떠났으나 곧 삭령 군수를 얻었다. 그러니 공직의 격식에 맞지 않아 부임하지 않았다. 군기시첨정과 사재감정을 배수하고, 얼마 후 장령으로 돌아와서 집의에 오르고 옥당에 입록 되어서 수찬, 교리, 부응교가 되고, 사간원으로 옹고 또 응교로 돌아왔다. 이듬해 정월에 이괄이 반역을 일으키니, 임금이 공주로 내려올 때, 공을 검찰사로 명하여 먼저 떠나 종사하게 하니, 공주에 이르러 행재소에 머물렀다. 어영사 이귀가 강가 방비를 보고 적진의 깃발을 바라 보고는 먼저 도망하니 군이 크게 무너졌다. 그런데도 귀는 바로 공로를 핑계대고 제 마음대로 처신하였으며 왕도한 그를 귀중히 여겨, 왕께 아뢰길 막혔다. 그 부장을 파면할 것을 청하니 공이 차자를 올려, 귀를 군법에 회부시킬 것을 힘써 간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듣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공이 벼슬길이

급여의 남용을 탁지부에 맡겨 일관하고, 밖으로는 각 군영과 각 군에서 횡포로 거둬들이고 낭비하며, 뇌물을 받치는 것들을 차례로 개혁하게 되면 재물의 사용하는 제도도 생기고 백성도 살아날 것입니다。」 하였다. 『신이 살펴보니 팔도에서 개간한 밭이 50여만 결인데 탁지부에서 해마다 부과하는 쌀은 14만 석에 불과한데 항상 비용이 거의 3분의 2가 드니 그 나머지도 항상 바치게 하면 반드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금 외에 모든 부역을 없앤 후에 한 결의 밭 세금으로 5두미와 한 필의 면포를 부과해서 양병의 자금으로 사용다면 식량의 부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군사 제도에 있어 수를 줄여 정예를 뽑고 그 장수와 영관을 택하여 그의 의식을 너그러게 해 주고, 기예를 익히게 하고, 상벌을 밝히면 정예군사 10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군사가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삼월에 또 상소하여 말하기를 『추한 오랑캐가 방자하여 악하고 거슬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혹하나, 이미 갇지 못하고 돌아와서 만일 말을 달콤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우롱함에 반드시 술개가 날 듯 하고 돌이 부딪치듯 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기를 군사로 할 것입니다. 이 때가 이르기 전에 힘을 기르고 스스로 강하게 하면, 하루 아침에 갑작스럽게 그 별어지는 소란을 들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런즉 오늘날 의리에 항거하는 것은 마침내 빈 말이 되고 실로 화에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급한 일은 부역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줄여 민심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신이 전에 상소하여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원하오니, 전하께서는 급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고를 내려서, 팔방에서 전하의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게 한 후에, 친히 전방에 나와 국방의 튼튼함을 검토하시고 경계를 펴게 하셔서, 다시는 안일하고, 일시적인 편

안함을 꾀하는 일에 흔들리고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하였다.

팔월에 차자⑨를 다시 올려 말하기를 『신이 전일에 말씀드린 것은 흐리면 비 오는 것을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화의 기틀이 이미 임박하여, 마치 눈썹에 불이 붙는 급박함에 이르렀습니다. 청컨대 전하께서는 먼저 각 궁에서 일하는 하인과 측근에서 일한 젊은이를 징발하고, 다음으로 궁실이나 백관의 준재들을 징발하고, 다음으로 유생들을 징발하고, 다음으로 각 관아에서 일하는 구실아치를 징발하고, 다음으로 백성을 징발하고, 다음으로 공사간 천민을 징발하면 서울 안에 수만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도 군사를 선발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여 먼저 호족과 세도가에서 징발하고 뒤에 낮은 사람에게 이르르면 누가 감히 원망하며 누가 감히 법을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수십만의 정병을 수고롭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비변사를 해체하여 먼 지방에 나가는 제도의 피해를 줄이고, 강화도의 방비를 철거하고, 행궁을 불살라 버리고, 평양으로 진주하여 반드시 싸우면 물러가거나, 패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충의로운 지사와 남은 양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군사를 다시 징집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모집되고, 식량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모아져서, 군사의 위용이 왕성하고 웅장하게 풍채가 변모할 것이니, 누구와 오랜 동안 약속하기를 꺼려 하겠습니까.』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나 공이 홀로 다 말씀하여 숨기지 아니하고, 시종 충성스러운 정성이 간을 떨어뜨리고 담을 녹일 뿐이요, 듣기를 싫어하고 마침내 실행됨을 보지 못하니 그 해 겨울에 오랑캐가 국력을 기울여 쳐들어오니, 국가의 육됨과 백성의 삶에 화가 미쳤을 뿐이다. 이 모두 공의 말과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뇌우치고 깨닫지 못하며, 공에게 먼저

* 윤형 묘비

(전 액)

대사간 윤공 묘비명

(비 문)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행사간원 대사간 윤공 묘비명 병서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좌의정 겸영경연사감

춘추관사 세자부 김상헌 찬

가선대부 행사간원 대사간 겸동지성균관사 김수항 전

고 대사간 팔송 윤공은 과평인이다. 자질이 강하고 굳세어 큰 절개가 있고,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힘쓰고 독실하게 행하며, 항상 세상을 다스리는 뜻을 품고 수차례 상소를 올려 일을 의논함은 모두 국가의安危와 존망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끝내 합치하는 바가 없이 일생을 마쳤다.

내가 일찍이 논하건대, 하늘이 인재를 낼 때에는, 세상에 쓸 뜻을 가지고 내지만, 그에 합당한 자가 드물고 부적합한 자가 많다. 혹 처음에는 나갔으나 마침내는 물리침을 당하고 혹 길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꺼려하여, 생전에는 당시에 보탬이 되지 않았어도, 죽어서는 후세에 이름이 나는 이가 있으니 어찌 하겠는가. 불초한 무리들이 간악한 생각을 품고 나라를 그르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 후한 녹봉을 받으며 서로 어깨를 부비며 한 무리가 되어, 어진 자와 충성스러운 자를 항상 멀리하고 친하려 하지 않고, 그들 보기를 원수같이 하니, 오호라! 어찌 하늘의 뜻이 다함인가. 승정 9년 2월에 공이 재화를 입어 상소를 올렸

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하늘의 노여움이 극에 달해, 온 나라 사람들이 황황 급급한데, 전하께서는 구중궁궐에 깊이 계셔서 군신들이 감히 만나 보지 못하니 상하가 답답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부터 어찌 이러한 일이 있고서,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대저 잘못된 정치를 이어받은 자가 떳떳한 도리를 지킬 수 없고, 작은 절개에 구애받는 자는 능히 대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만일 크게 깨달아 행하고 넓고 과감하게 행동하여 구습의 습관을 혁신하지 않으면 난리로 망하는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신이 전날에 종묘지락을 정지해 줄 것을 청한 것은 종묘지락의 철회가 어려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묘악을 말한 것은, 묘악이 철회되면 어선①은 반드시 단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요, 어복②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요, 내탕③과 내수④를 얻거나 지출하지 아니하며, 환관과 궁첩을 줄이지 않을 것이요, 진상⑤을 가히 과할 수 있고, 공헌⑥을 가히 없앨 수 있을 것이니 이것들을 이루 위간다면 백가지 불필요한 경비를 덜 수 있어 위태함이 안전하게 전환되는 것이 여기에 있으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 생존의 방책을 도모하는데는 다만 백성을 보존하는 것과 양병에 있는데 제함과 왕을 모시는 일이 하나 같이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외부에서 공납하는 것은 폐하고, 저자에서 사서 쓰고 있으니 만일 태관⑦의 관료와 음식, 상방⑧의 직조와 공작을 모두 덜주고 파해서 흠으로 만든 제기와 나물국과 짙은 갈포옷의 크고 훌륭한 덕을 본받고 궁녀와 관방에서 옛 제도를 회복해서 써서 면포를 걷어 들이고 땀나 무를 공급받는 비용을 줄이며 그밖에도 모두 절약해서 검소하게 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안으로는 훈척들이 점유한 공전과 산과 못의 이용과 여러 관청의 크고 작은 사사로운

昔在己卯冬癸舉等請撰先考墓誌于清陰金文正公庚辰遷居而埋之墓前石底草印未復請碑文于公公曰公於前日所撰墓誌已多論述乃不名今不任公事且公外家事一
 以一篇而用於幽顯其識之未幾公下世乃公殆名而仍用此文者豈非誤也先考實出通政以南溪通從實加嘉善公年六十九歲多病而卒於己卯冬十一月
 立碑則二品官階不容不書故始加諸行職之上焉先妣事實未及登載於原文茲又請宋尤庵為後記凡此顯事不可不錄以子世後竟有不法其先考者公之墓誌
 崔沂女一男行心言再娶經歷李長亨女一男德生實二女陪李相慶朴尚洞妻女陪李得昇吳郡中慶院使李春元女二男悅均同前主事李德生女一男德生女陪金德生

측면 2.

慶萬生實崔載前再娶安璵女一男行一女幼文學慶李嫁女二男德生女陪李得昇吳郡中慶院使李春元女二男悅均同前主事李德生女一男德生女陪金德生
 妻男機拙李正興早卒有繼子敏迪校理擢僞郡守三男恕志慈五女孫朴純生實成一童會集行冥水題遷今共植女三男行德機男女陪崔長昌男幼行德機男女陪崔長昌男幼行德機男
 時舉進士娶判書閔聖徽女未育再娶縣令李崇義女三男綱捷讓三女陪金海津幼在學三一女陪李友松生實三男三女敬教敬教山進士明教長子實幼茂廣也其後世
 一女道教德教知教塔權在衙指一女掃一女掃一男殷教二女拾一女極二女推二男自教可教長教一男一女敬教二女陪

측면 1

命竟用其言公邑與同僚梳輪備轎吉樂懸旌特執立蘭亭畢歸廣反至街頭令各不省公慷慨不已復上疏曰今日之事名義相和與其得也何有於世乎三子之志亦
 報國之臣遠托奔將又斬膚使而回詔胡之物獨寶三軍激勸人心上怒下拔尹其疏中除字宛然除開密公言直對上意急令拿職編記政院封署內自司交尹上怡然
 仍其職公再獲命是會事變之時時事者美公而惡數勳其人前阮街主夜自此微雨中之老翁激怒上亦內不善其名召置之公謝病跡雖里無何復拜舍人適有不悅已者紀德重到
 李仁居辭上見其檄文入殿言幾公說跪為學坐下降旨公移病自免久之以御史暗行西開窮邊要隘不過歷志林推民固園之宜選拜司諫用薦者皆吉州牧使後參請加不許命
 移安邊警路爭之留簡補給拜司成水保正應改應教命人輔德仇義論官禁不放上命統職職沒通判准同副奉高序陞右列門年拜吏曹外郎次上撥還為大校使後參請加不許命
 力求補外尋出刑府尹首以寬民力為務雖不急之役量田使者意在增賦公不從由引對公又上前劾上益短弱于時承旨公奏數目書南陽決意休退再以諫職官皆不從丙子也王
 喪力疾就列上哀傷詔部奏親視朝公以為國事發憂宜日按臣郡講求治道不一悅者多言口諛詳公累言乞遂至三月癸亥朔告事書至三日壽驕已到西來上當最歡幸江都不及
 劬上以災異命停月膳藩臣上欲請復舊制太師書秘宣公並効之功是不悅者多言口諛詳公累言乞遂至三月癸亥朔告事書至三日壽驕即到西來上當最歡幸江都不及
 入南漢山城有病赴閤問之一子馳赴大臣以下錯愕失措公言于昭府請先輸近成矣黃龍驛急運武車兵器不能月先是事使持至俗拜書止此席堂定議所之至事變時嘗時主
 是儀者試我於非困事之人平時圖逞喜得圖套年日清論之攻己若勝服之上發畫置中博給裴敬無遺力乃陰啖誘使使士露刀密門以資之又掩而有迫今自負願有湛及公上
 絲待命上挂體滿有言以身自當比辨論語因合相缺觀故聞者多失哭別奇需諸子處後事然若他日曾母誦謂論中載上可之遂以尹集建潛二人為應公及諸人侍衛虎口
 矣迨上自廢帝還都伴相悍平仇視士類計將魚肉之觀上意不果命大臣加罪同譴者十人公為首目以語涉不睦始令逐罷寬路力救止配中道公既配所不出外人交深唐杜
 門仰屋長嘆而已至冬下赦放釋然非德音也公不敢歸家越境俟明年秋始還尼山兩舍為修葺計或勸稍近京華且公諸子赴公車以進契詢公曰七十之季西目不見彼河岳地
 此子無以我故易志死生禍福命也終不動及間朝廷有助兵之舉自此絕不開時事半卧一空室不出戶庭五月戊戌疾知垂危仲實公泣先述薄冀歙用士服勿節基西禮禮平則請至
 六月四日易齊子正寢春秋六十九病時謂淳若吟嗟旁人諦聽皆古人歎世傷時之語其慘怆憂國之意至死尤甚也表之性出於天者蓋如以子舜舉孝慈命老年八月十一號薨于尼山
 縣北先墓後享向之原公為人莊重藹然終日不設情容客及至接人溫然謙卑長者收歿事母甚謹其衣衾惟以特異弗嫌婦姑於人毀譽長子以公道致貴公無子雅不喜持共贊而考
 故人之貧窶者曲加撫卹所居州郡常著教思片其餘以代民僕而終不視德米穀漁鹽簿書井井吏不污害其奸以至館字楊東嶺之具實旅所以周尊嚴無庸公雅不喜持共贊而考
 積常有一道假言未卒檢人過生為義理之辨先定於內奮不顧身離人世之感不能算當遇造次之際捨體益壯費財出處蕭然公曰限於揮霍爾等練極富友松松直理遇事高列
 鮮直理明一時稱以文詞稱者有不如也平生所為章奏切於君德時者甚多顧全不能盡載茲見其略之以知其人也鳴呼寬懷涉陸忠烈而不覺所謂自古而然於公獨何憾焉必有往
 其責者矣公有二女長幼舉縣監以聲譽授官以公命出後伯父商舉奉事文舉往宣戰迭見其略之以知其人也鳴呼寬懷涉陸忠烈而不覺所謂自古而然於公獨何憾焉必有往
 餘半當中國崇禎之世有賢夫人莊太師之裔身姓尹時之不附履否運衰憐憶思忠惠英泉麟獨方賴以須臾成之丘從父族長夜冥冥自取光江河不廢名此長
 徐夫人對靖壬申四月九日生十九歸于公夫人生長禮法之家性又莊淑事姑慶夫人盡孝度夫人甚安之公脫逃通顯慶夫人困在食土其夫人事勞承順親表貴戚其空勉勵酒食
 唯命未嘗言有無公多承自及府尹夫人一皆視秩感封諸子又連倫而進夫人愈自謙約紛績績劍圭帶去手公兄弟五女姊妹二人子姪甚眾其性成能出綽不同而夫均尚恩禮其
 門之聚無有怨謠不滿者公殁逾月長子繼逝夫人重要致喪十年如一日崇禎戊子出沒于莽草官安陰其九月二十九日夫人卒于縣舍葬美穆公墓有誌其墓遷葬癸丑十二月三日合
 葬于尼山縣西其久潤去先府君墓三里而遙長子勤舉舉在其前官惟人家興遞將至則必有所婦人輔佐君子教養子孫以樹德與院而外黨邪其他世間有所稱善者但敘之
 刻延以諸子術訓誡美為攝紳指範云上初陞文舉為大憲宣舉為司業是為一特之光其餘豈皆有文行懿蓋公之所賜而一益夫人之教使然也清隆庚辰公祀其事于子墓即
 夫人行跡追慕其下方建立此碑者仲子商舉時守台川郡云

宣和之後二十
 子貴茂啟書
 子文舉啟書



윤항 묘비

10. 윤황(尹煌) 묘비

소재지: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 창골

연월일: 서기 1660년(현종 1년, 경자)

찬자: 김상헌(金尙憲)

서자: 윤순거(尹舜舉)

비신: 높이 222cm, 폭 104cm, 두께 24cm

자경: 전액 7·5cm, 비문 3cm

석질: 화강암

윤황의 묘역에는 세기의 묘비가 세워져 있다. 묘 앞에는 팔작 지붕 모양의 가침석을 갖춘 묘표가 있으며 묘 바로 옆에 묘표문에 추기를 한 묘비가 세워져 있고, 묘소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풍비가 신도방향(동남방향)에 자리잡고 있다. 묘비는 비신에 비해 커다란 가침석을 하고 농대석 위에 세워져 있다. 비문은 김상헌이 짓고 전액은 김수항이 썼으며 비문 글씨는 아들 문거가 쓰고 비음은 송시열이 지은 묘비인데, 신도비 격식으로 수립되어 있다.

비문을 지은 김상헌은 윤황과 함께 병자호란 때 척화의 주장을 펼친 분으로 심양에 억류되었던 일이 있었으나, 윤황은 아들 문거가 병중이므로 자수를 권하지 않아 심양으로 가는 것은 면하였으나 격한 상소로 영동에 귀양을 가기도 했다.

전액을 쓴 김수항은 안동인으로 청음 김상헌의 손자로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고, 전서를 잘 썼다.

비문을 쓴 윤문거는 필법이 정묘하여 그 형동토 순거와 동생인 민준 선거와 더불어 삼형제가 같이 필원에 들었다. 그는 많은 금석문을 남겼는데, 팔송묘비 외에 권징묘갈, 임광묘갈, 유계

묘비, 이채록묘갈, 윤선거묘표 등을 썼다.

윤황은 창세의 아들로 인조때 문신이며 자는 덕요이고, 팔송이며 글씨를 잘 썼다. 노강서원, 초강서원, 용계사에 제향되었다. 1597년(선조 30) 알성시 을과에 장원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에 보직되고 병조·예조·형조 좌랑 등을 역임하였으나 간당들의 탄핵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이산에 은거하여 학문을 닦았다.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 청렴한 관리로 지목되어 장령, 집의, 대사간, 동부승지, 이조참의, 전주 부윤을 지냈다.

이괄의 난 때에 어영사였던 이귀가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쳤을 때에 그의 죄를 탄핵하였고, 정묘호란 때 화의를 주장하는 이귀, 최명길을 면박하였으며 병자호란시에도 척화의 신으로 인정받았다. 1637년(인조 15)에는 화의를 배척한 신하는 자수하라는 명을 내리자 김청음, 정상계가 먼저 자수하여 청국에 보내어 지게되자 황의 아들 문거가 부친도 자수할까 염려하여 알리지 않았는데 후에 이를 알고 아들을 책망하고 상소하여 청나라에 잡혀가기를 주청하였다. 이에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영동으로 귀양 보냈다가 1638년(이조 16)에 풀려나게 되었다. 귀양에서 풀려나자 이산으로 돌아와서는 『나는 선묘나 지키다 죽는다』 하고 이후부터는 시국에 관한 일은 절대 말하지 않았다.

自新錯愕避舍 朝綱稍肅無何公以事出是夜賊鋒猝逼光海蒼黃移駐公聞變馳還則已失所在路塞不得進遂歸湖中舊居召集義旅體察使鄭公澈素奇公才略見公喜甚卽辟公爲從事癸巳建牙湖南簡領官義諸軍北上勤 王運于水原之禿城會鄭公被謫去公亦幾中奇禍 朝廷改定貢案用薦入戶曹公自度積忤時議言必不用遂辭不就自是浮沈鄉里除職輒不拜或乍就旋去久之國家將行號牌法公憂之上疏陳其不便因斥時宰之容悅聚斂者言甚剴切辛亥十一月十三日以疾終明年二月初八日葬于連山縣居正里亥坐巳向之原從先兆也公字景晦系出光山光山之金世稱甲族高祖國光左議政光山府院君曾祖克忸大司諫祖宗胤郡守考鎬 贈贊成妣全義李氏贊成之兄庶尹錫無嗣以公爲之子公生而顛異少從秋巒鄭之雲遊聞爲學之方薦於行誼閨門之內人無間言栗谷李文成公雅重之常曰可與共國事者金某其人也及掌銓議欲推穀公置臺職未幾文成公卒遂未果鄭賊汝立方盜時名公惡其爲人屢指斥情狀友人宋翼弼爲仇家所嫉闔門遭禍無所歸公舍養之餘十年人以爲難公之配曰淑夫人崔氏節度使守仁之女賢有婦道先公卒葬與公同原無子子弟之子善生女長適觀察使姜燦次適郡守宋爾昌側室子曰伯生生員次命生甲生女適宋胤昌善生有子曰梁燦女適尹材伯生有子曰槩楮楮餘幼姜燦有二子遠期早夭碩期官副提學宋爾昌有子浚吉進士內外孫男女甚衆而姜碩期有女今爲 王世子嬪公歿之二十年始樹墓碣沙溪先生以狀命維爲之銘先生則大憲公之胤而公之猶子也其言信而可徵維故不敢辭遂敍而銘之其詞曰 湛廬之利也而弗剽之而弗剽之 滿稍之駛也而弗驟之而弗馳之 天畀之而人棄之時乎命乎將尤誰 家聲大於猶子餘慶發於外裔 有我文兮錢之貞石千秋萬歲兮無或弊

奮忠贊謨立紀靖 社功臣資憲大夫吏曹判書 兼弘文館大提學禮文館大提學 行成均館事同知 經筵事 新豐君 張維撰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 右議政 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金尙容篆

從孫 奉列大夫 行司憲府 執義 金集書

* 金殷輝 墓碣

(前面)

有明朝鮮國嘉善大夫行僉知中樞府使兼五衛將金公殷輝之墓

淑夫人海州崔氏 附左

(陰記)

(篆額)

行僉知中樞府使金公墓碣銘

(碑文)

有明朝鮮國 嘉善大夫 行 僉知 中樞府使 兼 五衛將 金公 墓碣銘 並序

崇禎九年七月 日

明宣朝有名臣曰大憲金公繼輝有弟曰殷輝少以才敏稱與長公埒名卽而屢扈於公車遂棄博士業就蔭仕歷內外官在內則爲活人司圃二署別提水運判官通禮院引儀司憲府監察宗婦簿寺主簿戶工二曹佐郎翊衛司翊衛刑戶二曹正郎宗親府典簿通禮院相禮於外則監交河令臨陂縣守清道中和丹陽溫陽清風加平天安七郡牧廣州晚以老壽進秩嘉善拜僉樞年七十一而卒公資性敏達開爽眼力絕人看書能十行俱下尤長於智慮出謨料事懸斷若神其才謂器局人皆推服以爲不可及始爲戶曹郎吏呈會計簿公一閱遽詰曰某物贏若干某物欠若干吏初不服及細算乃悉如所言自是吏胥讐服稱神明不敢斯其令臨陂也倭寇犯鹿島公率兵赴難始監司徵兵無運餉之令列邑皆缺兵食獨公所領不乏軍興羣山倉多儲穀公慮有他變請監司亟遣兵守之尋有 朝命如公策以是人益服公長慮壬辰難起公方家食聞 大駕西狩遂追赴 行在不能及會光海承 命駐伊川公詣東朝陳便宜數策請親接士民以收人心光海用其言羣情胥悅光海御東軒 廟社主權安于正廳而柳自新以嬪父處西軒公論其無禮擬之於王鳳借殿

은 대사헌의 아들이요 공의 조카이다. 그 행장은 믿을 수 있고
가히 증거할 수 있다. 유가 감히 사양치 못하고 드디어 여기에
서술하고 명한다. 그 사에 말하기를

담로⑤의 날카로움으로도 자르지도 못하고 가르지도 못하며
포초⑥의 빠름으로도 달리고 못하고 내 단지도 못하다.

하늘은 베품이 있어도 사람은 저버리니, 때 탓이나, 운명의
탓이나,

장차 누구를 허물할가.

집안의 명예는 조카로 해서 크게 일어나고, 남은 경사는 외손에
게서 드러나는 도다.

내가 비문을 지어 비석에 새기니, 천추 만세도록 후시라도 훼손
되지 말자이다.

분충찬모입기 정사공신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
관 대제학 행 성균관사 동지경연사 신흥군 장 유 찬하다.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영경연사감 춘추관사 김상용
전하다.

종손 봉렬대부 행사헌부 집의 김 집 쓰다.

(역 주)

① 박사업(博士業) | 조선시대 태학에서 태학생들을 가르치던 일.

② 동조(東朝) | 동궁이 임시 정사를 보는 조정.

③ 왕봉(王鳳) | 중국 한나라 왕봉이 황후의 동생으로 그 세력으로 대궐의 일부를
빌어쓰다가 그 죄로 옥사한 일이 있다.

(漢東平陽人 禁子 元帝王皇后之弟 字孝卿 嗣侯 成帝立以鳳爲大司
馬大將軍領尙書事 時王氏之子弟 分據執官幾滿朝廷 鳳用事 帝遂
謙讓無所專 京兆尹王章劾奏鳳 鳳疏乞骸骨 太后聞之 爲之垂涕不
御食 帝弗忍 迺報鳳起視事 使尙書劾奏章 死獄中 自是公卿皆測目
輔政十一歲卒 諡敬成 (漢書九十八卷))

④ 갑족(甲族) | 가계가 아주 훌륭한 집안.

⑤ 담로(湛盧) | 옛 칼의 이름. (古劍名、越絶書外伝記 寶劍)

⑥ 포초(蒲梢) | 준마의 이름. (古駿馬名、卽蒲梢也 | 史記 樂書。 後伐大宛得千
馬名蒲梢 | 漢書 西域伝贊)

아들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서로 기뻐하였다. 광해군이 동헌의 사묘에 나가니 군주의 권위가 정청에서 안정되었다. 그런데, 유자신이 빈의 아버지로서 서헌에 거쳐하였다. 공이 그 무례함을 들어 중국 왕봉^③이 대궐을 빌리는 것에 비유하여 말하니, 유자신이 잘못됨을 깨닫고 놀라서 거처를 옮기니 조정의 기강이 점점 엄숙해졌다. 공이 사무일로 외출했는데, 이 날 밤에 적의 야습이 갑자기 엿박하니, 광해군이 어찌할 겨를 없이 놀라서 주둔지를 옮겼다. 공이 이 사실을 알고 달려가 보니 이미 나갈 길이 막혀서 호서에 있는 옛집에 돌아가 의병을 소집하였다. 채찰사 정철공은 평소에 공의 계책을 기특하게 여기다가 공을 만나 심히 기뻐하며 곧 공에게 종사관 일임을 맡겼다.

계사년에 호남에 군문을 세우고 관병과 의병의 모든 군사를 관장하고 거느려 북으로 올라가서 왕사에 부지런하여 수원의 독성에서 군무를 보는데, 정공이 비방을 당하여 공을 떠나니, 공도 역시 여러 번 기이한 화를 당하였다. 조정에서 공물을 기록하는 문서를 개정하여 공을 천거하여 호조로 들여보내니, 공이 스스로 해아려 보기를 시국의 의논이 비방함이 쌓여서 말을 하여도 반드시 쓰이지 못할 것을 알고 드디어 사양하고 나가지 아니하였다. 향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벼슬을 재수하면 곧 사양하고 혹 잠시 나갔다가 곧 떠났다. 이러하기를 오래도록 하다가 국가에서 장차 호패법을 시행하려 하니, 공이 이것을 염려하여 그 불편함을 상소하였다. 당시 재상들에게 잘 보이고 아첨해서 수렴해 들이는 무리들을 배척하는 말쑥이 심히 곧고 간절하였다.

신해년 11월 13일에 병환으로 돌아가니 명년 2월 초 8일에 연산현 거정리 해좌 사향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선영의 산소에 따름이었다.

공의 자는 경희이고 세계는 광산에서 나왔다. 광산 김씨는 세상

에서 갑족^④이라고 부르는데, 고조 국광은 좌의정, 광상부원군이 요 중조 극복은 대사간이요, 할아버지는 종윤이니 군수요, 아버지는 호이니 증 찬성이요, 어머니는 전의 이씨이다. 찬성의 형인 서윤석이 후사가 없어 공으로 그 양자를 삼았다. 공은 나면서부터 영리하고 특출해서 어려서 추만 정지운을 따라 놀면서 학문하는 방법을 듣고 행동과 의지를 도답게 하여 집안 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말이 없었다. 율곡 이문성공(이 이)께서 평소에 공을 소중히 여겨 항상 말씀하시기를 가이 더불어 국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김 아무개라고 하고 이조에 재직할 때 공을 추대하여 결에 두고자 하였으나, 얼마 후에 문성공이 돌아감으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역적 정여립이 바야호로 이름을 도적질 할 때에 공이 그 사람을 증오하여 여러 차례 지적하여 배척하는 꾸짖는 글을 올리니, 그 화가 친구인 송의필에게 미치어 온 집안이 화를 만나서 돌아갈 곳이 없었다. 공이 집을 마련하여 그를 돌보기를 십여년 동안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공의 부인은 수부인 최씨이니 절도사 수인의 따님이다. 어질고 부도가 있었다. 공보다 앞서서 돌아가니 장사는 공가 더불어 같은 언덕에 모셨다. 아들이 없어서 아우의 아들인 선생으로 양자를 삼았다. 큰 딸은 관찰사 강찬에게 출가하고 다음 딸은 군수인 송이창에게 출가하였다. 측실의 아들은 생원 백생과 명생과 갑생이요 딸은 송윤창에게 출가하였다. 선생의 아들은 양과 장이요 딸은 윤재에게 출가하였다. 강찬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원기는 일찍 죽고, 석기는 벼슬이 부제학이었다. 송이창의 아들은 준길이니 진사요, 백생의 아들은 벽과 설과 섭이요, 나머지 는 어리다. 내외손 남녀가 심히 많은데, 강석기의 딸은 지금 왕세자의 빈이 되었다. 공이 돌아가간지 20년에 비로서 묘갈을 세우게 되었는 데 사계선생이 지은 행장으로 장유에게 명하여 명을 하라 하시니 선생

* 김은희 묘갈

(전 면)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행 첨지 중추부사 겸 오위장 김공 은희지묘
숙부인 해주 최씨 부좌

(음 기)

(전 액)

행 첨지 중추부사 김공 묘갈명

(비 문)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행 첨지 중추부사 겸 오위장 김공 묘갈명 병서

명종과 선조조에 명신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대사헌 김공 계휘인데, 그에게 아우가 있었으니 그가 은희라는 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주가 영민하다고 이름이 나서 형과 더불어 이름이 알려졌다. 이미 벼슬길에 여러 번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길이 어려워, 드디어 하던 박사일^①을 내놓고 음사로 벼슬길에 나아가 내외 관직에 임했다. 내직으로는 활인서, 사포서의 두서의 별제와 수운관관, 통례원인의, 사헌부 감찰, 중부시주부, 호조와 공조 두조의 좌랑, 익위사 익위, 형조와 호조 두조의 정랑, 종친부전부, 통례원상례를 지내고, 외직으로는 교화현감, 임피현령, 청도, 중화, 단양, 온양, 청풍, 가평, 천안 등 일곱군의 군수와 광주목사를 역임하였다. 만년에 늙고 장수하여 가질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첨지 중추부서를 배수하였다. 나이 71세에 돌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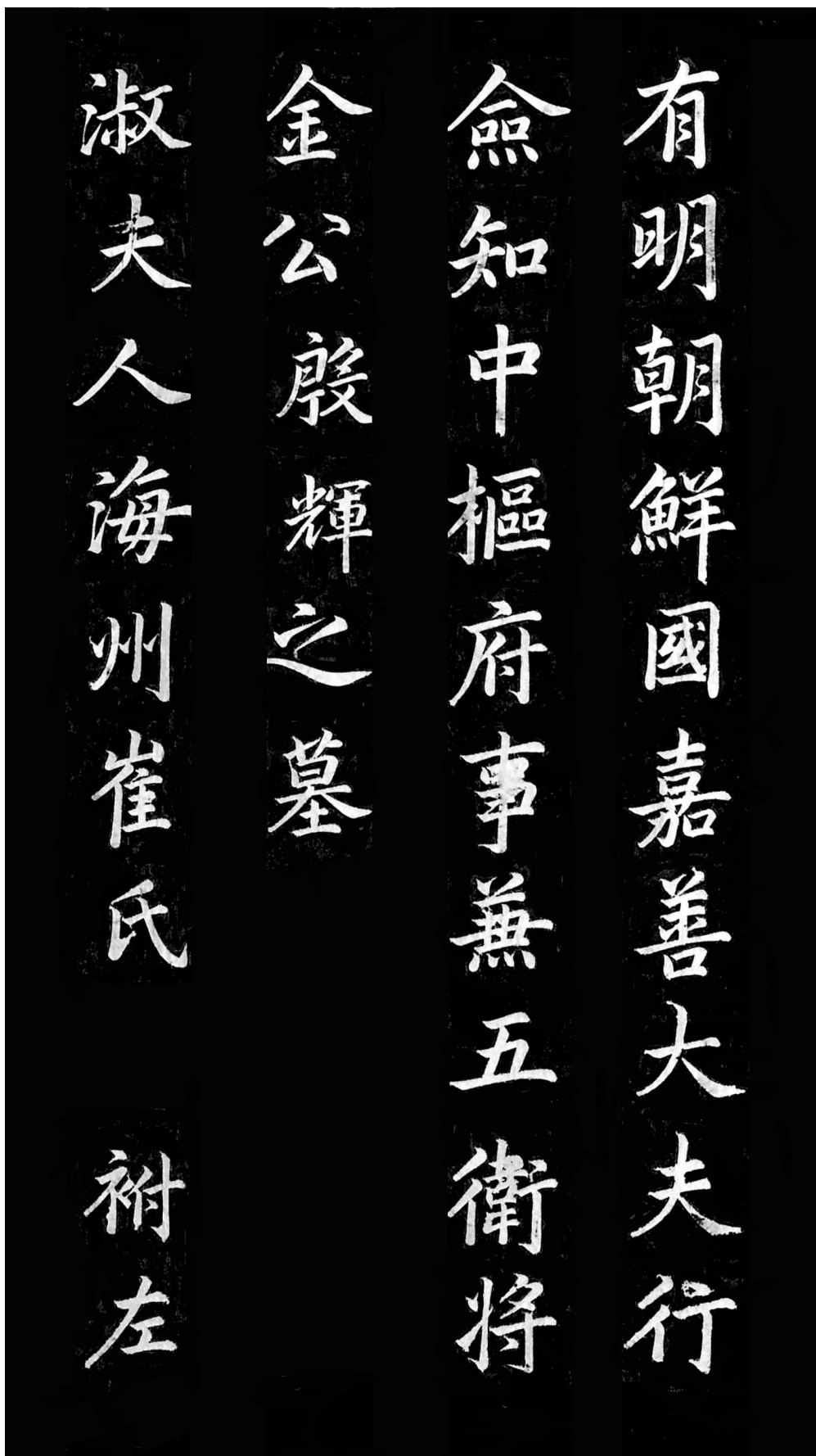
공은 자품과 성품이 영민하고 통달하며 개방적이어서 항상 명랑하였다. 남보다 눈이 밝아 책을 볼 때, 열 줄을 함께 볼 수 있었다. 더욱 생각이 슬기롭고 민첩하여 대책을 내고 일을 처리함이 매달린 것을 끊어 내림 같고 신통한 것 같아 사람들이 그 재주와 도량과 재간을 높이고 탄복하며 말하기를 남이 따라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처음 호조좌랑이 되어 아전들이 회계장부를 바치니 공이 한번 열람하고 곧 힐책해 말하기를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남고,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부족하다고 꾸짖으니, 아전들이 처음에는 그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급기야 공이 세밀하게 계산을 하니 공이 말한 바와 같았다. 이때부터 아전들이 복종을 하고 신명하다고 말하며 감히 속이지를 못하였다. 임피현령이 되었을 때, 왜구가 녹도에 쳐들어와 공은 군사를 거느리고 난리 난 곳에 도착하였다. 처음 감사가 군사를 소집할 때 군량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하지 않아 여러 고을의 군사들은 군량이 떨어졌으나, 홀로 공의 군사만이 군량이 부족하지 않았다. 군사를 일으킬 때, 공은 감사에게 청하여, 여러 산의 곡창에 곡식이 많아서 침범을 당하기 쉬우니 급히 군사를 보내어 지키게 하였다. 곧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는데, 공의 계책과 같았다. 이 일로 사람들은 더욱 공에게 순복하게 되었다.

공이 임진년에 왜란이 일어날 것을 크게 염려하더니, 공이 잠시 집에 있을 때 난이 일어나 임금이 서쪽으로 파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행재소로 달려갔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당시 동궁인 광해군이 명을 받아서 이천에 주둔했을 때, 공이 동조^②에 나가 편리하고 마땅한 여러 수습책을 진언하고, 친히 선비들과 백성들을 만나서 인심을 수습할 것을 청하니, 광해군이 그의 말을 받



김은휘 묘갈. 음기





김은휘 묘갈

9. 김은휘(金殷輝) 묘갈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거정터

연월일 - 서기 1660년(현종 1년, 경자)

찬자 - 장유(張維)

서자 - 김집(金集)

비신 - 높이 - 133cm, 폭 - 71cm, 두께 - 24cm

자경 - 전면 - 8cm

음기 - 1·5cm, 음기 전액 - 5cm

석질 - 대리석

김은휘 묘갈은 대리석 비신에 반룡을 새긴 이수와 연화를 새긴 농대석을 갖추고 있다. 전면에는 묘표를 새기고 후면에는 전액과 묘갈명을 갖춘 음기를 새겨 놓았다.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묘갈 형식을 갖추고 있다.

김은휘는 1529년(중종 24년)에 태어나 1611년(광해군 3년)에 돌아왔다. 자는 경희이고 본관은 광산인으로 김계휘의 아우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출중하고 사리에 밝았으며 안력이 뛰어나서 책을 볼 때 10행을 한꺼번에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왜병과 싸웠고, 근왕병이 용인에서 패한 후에 전의를 잃음을 탄식하고 홀로 군기를 정비하니 군사들의 사기가 회복되어 수원에서 큰 공을 세웠다. 또한 북상도중 이천에서 광해군이 묘주를 임시 동헌에 봉안하고 백관이 배향하는데, 왕의 병부인 윤자신이 서헌에 거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하자, 선생이 크게 꾸짖어 궁중 질서를 바로잡았다.

율곡 이이와 구봉 송의필과 친교하였고, 관직은 천안현감을

비롯하여 여러 고을의 현감을 역임하였고, 가선대부, 행첨지, 중추부사 겸 오위장을 지냈다.

* 陽川許氏夫人墓碑

(前面)

有明朝鮮國 贈貞敬夫人陽川許氏之墓

(陰記)

有明朝鮮國 贈貞敬夫人許氏墓碣陰記

嗚呼此我先祖妣許氏之墓 先祖考墓在長淵葬連山實自我 先祖妣始我金氏爲東國故家名於羅麗盖久自麗季迄今三百禩不墜家業亶由我 先祖妣也 先祖妣貞節烈行足以光前裕後口碑千載固有不朽者存然墓無顯刻世系莫徵豈非後嗣之遺憾迺相議伐石以紀終始謹詳駕洛後裔有諱 宣文肇其陽川孔巖散宿儲餉麗祖南征軍以功封孔巖村主仍籍焉寔我 先祖妣之鼻祖自是厥後世有聞人 高祖諱洪僉議中贊諡曰文敬配享忠烈王廟 曾祖諱冠版圖佐郎贈贊成事 祖諱喬開城尹 考諱應司憲府大司憲諡曰景惠 先祖妣生於名門年若干歸于我 先祖考先祖考諱問氏出光州新羅遠裔卽大司憲諱 若采之嗣子 祖曰鼎光城君 曾祖曰英利判軍器寺 高祖曰稹政堂文學 贈諱章榮 先祖考妙年捷科選入翰苑未幾而卒 先祖妣早喪所天年_免十七 父母哀愍欲奪其志約已定 先祖妣始知卽負孤兒趨往舅姑家終身事 聞旌閭至今昭揭道左布在 國乘炳炳如前日事景泰乙亥先祖妣考終于第世遠未詳享年幾何竊以監察公生卒推之似是七十有八九葬新卜連山之牛首里高井山負坤原後以孫議政公貴追封貞敬夫人 先祖妣性度閨範宜有可稱道者今不可一二撫因其大者可側也已男曰鐵山卽所負孤兒也隱德不大施官止司憲府監察先 先祖妣卒後 贈領議政光城府院君生四男二女男長國光左議政光山府院君次謙光左參贊光城君次廷光濟用監僉正次景光承文院判校女適梓田副正孝溫次適生員權述諸派今各八九世蕃衍不可悉其間貴顯藹藹輩出清名宿德詩禮相傳要皆繼述 先懿式振家風其餘在世者亦多登名仕版趾美方來不亦盛乎噫顛木尙有粵葉況我先祖妣積德礪行度越尋常百千輩宜其身得遐壽世幾絕復昌受報食效若桴鼓影響福善之理果不誣矣茲乃我金興衰之驗而天道厚餉之意不可以不識故略其前後世系並及先祖妣事行以詔來世

崇禎八年乙亥正月 日

아니로다。 이는 우리 김씨 성씨의 증험이요 천도에서 후하게 내
린 뜻을 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략 전후 세계와
선조 할머니의 행적을 갖추어 후세에 가르친다。

송정 8년 을해 정월 일 8대손 집은 삼가 비문을 짓고 쓴다。

*양천 허씨부인 묘비

유명조선국 증정경부인 허씨묘갈 음기

아! 여기가 우리 선조할머니의 묘이고 선조할아버지의 묘는 장단에 있는데 연산에 장지로 쓴 시기는 선조할머니 때부터이다. 우리 김씨는 동국의 이름있는 집안으로 신라와 고려 때부터 이름난 지 오래였고 고려말부터 지금까지 삼백여년 동안 가업이 이어져 온 것은 우리 선조할머니 때문이다. 선조할머니의 정절과 열행은 조상을 빛내고 후손을 풍요롭게 하니 대대로 전해오는 말이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겠지만 묘 앞에 비가 없어 대대의 계통을 알 수 없으니 어찌 후손들의 유감이 아니리오. 이에 서로 의논하여 돌을 구해 시종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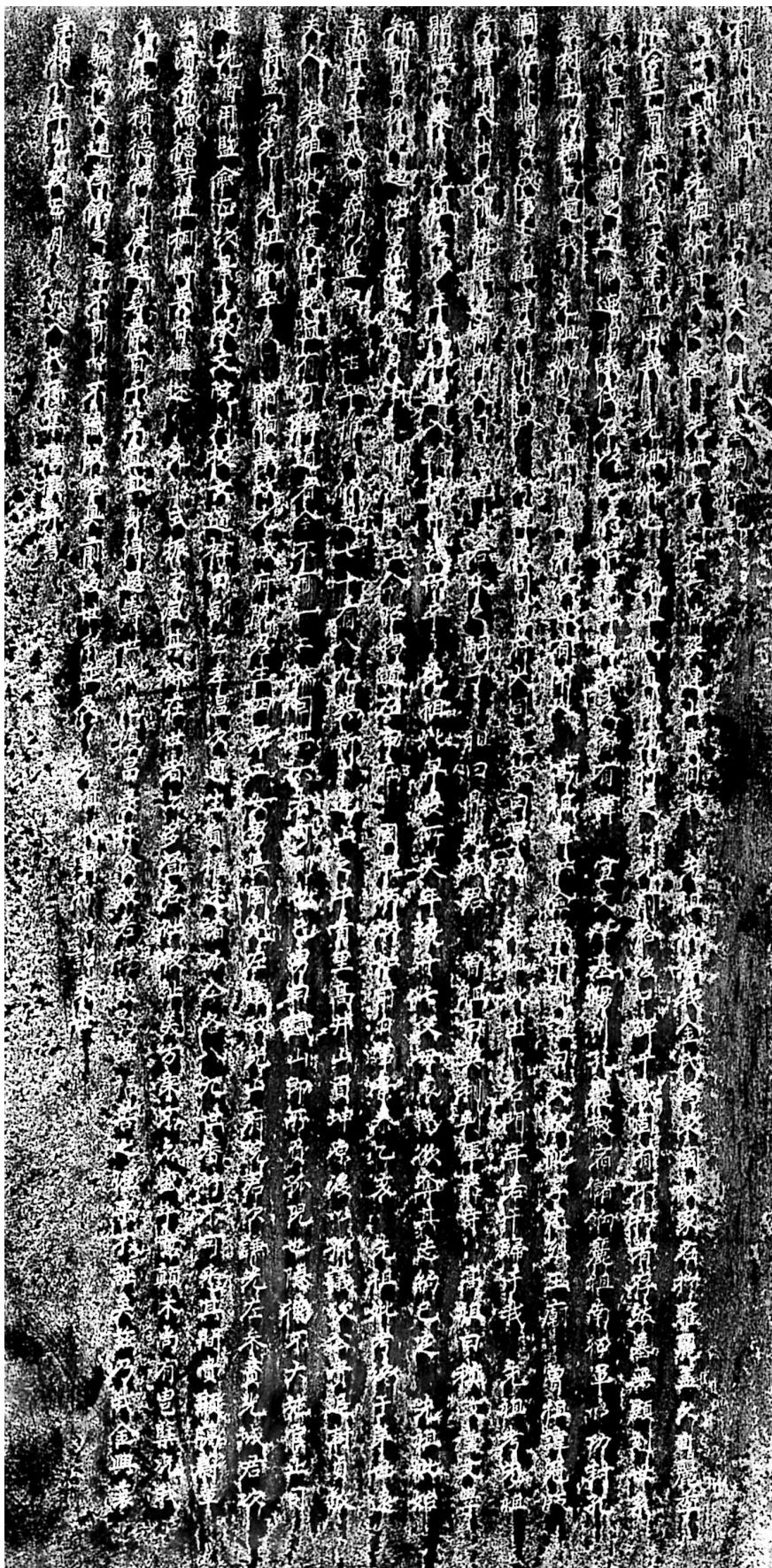
삼가 살펴보건대 가락국 후예에 선분이란 분이 있어 양천 공암에 살면서 비축해 두었던 곡식을 풀어 고려 태조의 남정길에 군사를 먹인 공으로 공암 촌주에 봉해지니 이로써 본관을 삼고 우리 선조할머니의 시조가 되어 이로부터 대대로 이름난 분이 나왔다. 고조는 홍이니 침의중찬 벼슬에 시호는 문경으로 충렬왕 사당에 배향되었다. 증조는 관이니 판도좌랑에 찬성사로 추증받았다. 조부는 교이니 개성판이요 아버님은 응이니 사헌부 대사헌으로 시호는 경혜이다. 선조할머니는 명문가에서 태어나 나이 어려서 선조할아버님께 시집 오셨다. 선조할아버님의 이름은 문이니 광주에서 나와 신라의 먼 후예인 대사헌 약채의 큰아드님이다. 조부는 정이요 광성군이다. 증조는 영리요 판군기사이다. 고조는 진이요 정당문학으로 증 시호는 장영이다.

선조할아버지께서는 소년에 등과하여 한림원에 들어 간지 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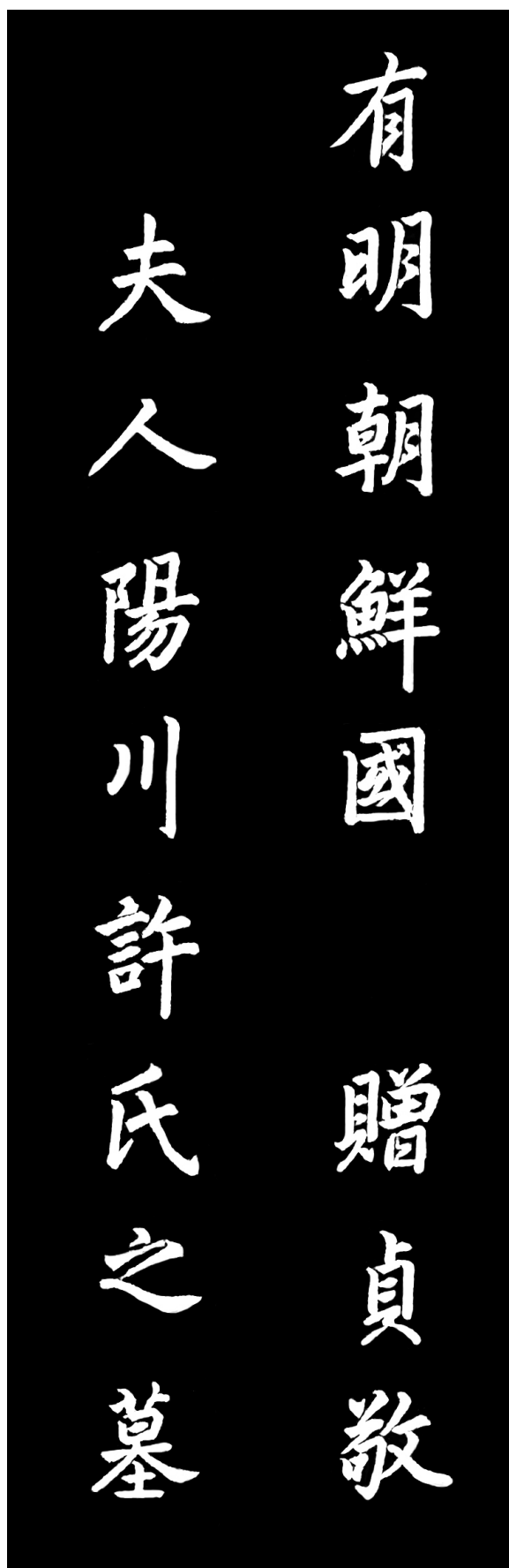
되지 않아 병으로 돌아갔다. 선조할머니는 일찍 부군을 여의니 나이 겨우 17세였다. 부모가 가엾게 여겨 개가를 시키려고 약정한 것을 알고 어린 아기를 업고 시가로 와서 일생을 마치니 나라에서 이를 알고 기려 정려를 내리니 지금도 마을 길가에 정려각이 있고 국사에도 기록되어 그 때 일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경태을해(1455)년에 집에서 돌아가니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감찰공의 생애를 미루어 보아 아마 78-79세였을 것이다. 연산 쇠머리 고정산 곤좌에 새로 장지를 정하여 안장한다. 후에 손자 의정공이 귀하게 되어 정경부인으로 추증받는다.

선조할머니의 성품과 법도, 규범 등에 대해 말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나 지금 쓰는 것은 큰 것과 알 수 있는 것을 가려 낼 뿐이다. 아들 철산은 그 때 업고 온 아들로, 덕을 숨기고 크게 펴지 못하여 사헌부 감찰에 그치고 선조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다. 뒤에 영의정 광성부원군으로 추증받다. 공이 4남 2녀를 두니 장남은 국광이요 좌의정 광산부원군이다. 차남 겸광은 좌참찬광성군이요 삼남 정광은 제용감찰정이요 사남 정광은 승문원 판교요 딸들은 재전부정 효온에게, 생원 권술에게 출가하였다. 이제 여러과의 8-9대 자손들이 번성하였다 해아릴 수 없고 벼슬길에 많이나아가 좋은 이름과 덕을 쌓고 시와 예로써 서로 전하여 선조의 아름다운 덕을 이어가며 가풍을 떨치었다. 그 나머지 자손은 지금 도살아 벼슬에 많이 올라 아름다움이 바야흐로 돌아오니 그 아니 성대한가.

슬프도다, 넘어진 나무에도 오히려 움이 나거늘 하물며 우리 선조할머니의 덕과 닮은 행적이 보통 사람보다 백천 배나 뛰어나니 마땅히 장수를 누릴 것이다. 대가 거의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져 번창하니 그 보답을 받고 효험이 있는 것이 마치 복과 복채가 서로 응하는 것과 같으니 착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이 거짓이



허씨 부인 묘비. 음기



허씨부인 묘비. 전면



허씨부인 묘비

8. 양천 허씨(許氏)부인 묘비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쇠머리

연월일 | 서기 1635년(인조 13년, 을해)

찬자 | 김집(金集)

서자 | 김집(金集)

비신 | 높이 | 134cm

폭 | 67cm

두께 | 17cm

자경 | 전면 | 8cm, 음기 | 1·8cm

석질 | 대리석

허씨부인 묘비는 대리석 비신에 팔작 지붕모양의 가첨석을 얹고 연화를 새긴 농대석을 갖추고 있다. 비신은 상후 하박형으로 전면에는 묘표를 새기고 후면에는 음기를 새겼다.

허씨부인은 대사헌 허응의 딸로 인물이 뛰어나고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예의범절에 밝았다. 17세에 충청도 관찰사를 지낸 김약채의 아들 김문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청상과부가 되었다. 몸속에 태기가 있던 허씨부인은 몸종 하나만을 데리고 충청도 연산의 시댁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는데, 이때 호랑이가 나타나 길을 인도하여 시댁까지 인도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시댁에 도착한 허씨부인이 대문 앞에서 며느리가 왔음을 고백하였으나 시댁에서는 받아주질 아니 하였다. 그날밤 폭설이 내려 한자이상의 눈이 쌓이게 되었는데 부인의 주위에는 눈이 하나도 쌓이지 않아 시댁에서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부인은 유복자인 김철산을 낳아 잘 길러내어 벼슬은 사헌부 감찰

에 이르렀고 후에 영의정 광성부원군으로 추증되었다. 이밖에 부인의 후손 중에는 김장생·김집 등의 해아릴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어 조정에서는 연산면 고정리에 정려를 세우고 정경부인의 시호를 제수하였다.

周卹貧窶至匱之不以爲意由是人皆樂爲之附其來如歸嘗有親舊逃難而來者公遽舍之其母死殯殮而棺至葬焉遠近愈益慕公之行鄉里列其行以聞于 朝而不克用壬辰兵起公年五十乃忼慨倡大義招諭傍近縣子弟聞風投袂而起者僅數百千遂揭誓滅此賊母負吾王八字于竿時號爲八字軍從之者益衆衆推公爲首公讓同縣習兵者而凡所籌畫實出於公及有斬獲上功 行在公不自居故賞不及翌年癸巳主兵者邁癘疾公親自救視之人或勸公避公曰旣與之同事危而去之吾不忍也終不避其人愈而公乃病遇先公忌晨起整衣冠設位哭終日不絕聲病遂篤卒不起以是年十月廿七日從葬尼山先墓之下夫人清州慶氏高麗侍中復興之後弘文館副提學渾之女聰明淑婉配德無遠爲母以順以慈後公三十二年卒歸附于公墓之左嗚呼以公之德之行不得其祿不得其壽行修乎家而不顯於世德行于鄉而不施于邦亡其天好惡人與遠歟抑高遠莽茫其無所與耶吾聞報施善人不在其躬必在其後若尹公者可謂善人者非耶吾於遺胤子若孫徵之矣丈夫子五人長曰燧次曰煌次曰炅相繼擢文科燧歷諸曹郎終竹山府使煌卽府尹在臺閣遇事輒爭鯁直不撓士論多之炅方爲司憲府掌令次日燧漢城府庶尹次日曰桂察訪女二人長嫁士人朴諶次嫁縣監宋熙祚府使娶府尹李玄培女無適嗣以弟之子舜舉後焉側室子曰後學女三人府尹娶牛溪先生成渾女有男女八人長勛舉縣監次舜舉商學文學成學宣學女婿李正輿權僞俱中司馬文學文科承文院正字側室三子一女曰民舉耕學餘幼掌令娶僉知尹琬女男女共八人長元舉進士次仲舉叔學季學長女婿宋時瑩進士次金槐金光岳餘幼庶尹娶僉知尹祁女男女十人長雲舉監役次鴻舉溟舉海舉鳳舉長女婿尹衡覺縣監次李時中餘幼察訪無子以兄子鳳舉子之曾孫男女凡五十餘人崇禎壬申以府尹貴始 贈公嘉善大夫吏曹參判同知義禁府事妣 贈貞夫人銘曰

大川之堦兮盈必沛竹斯之蒔兮生必苞 行績而畸德遠而滯者兮宜爾方多又髦 有羸其裔兮厥疇維不耕

崇禎七年季秋八月 日

孫男進士 舜舉 敬書

* 尹昌世墓碑

(篆額)

贈吏曹參判尹公墓碑銘

(碑文)

有名朝鮮國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尹公墓碑銘并序

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世子傳昇平府院君金瑬撰

門人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金光炫篆

惟我 聖上卽位之十載全州尹尹公袖其先人行狀來示余曰自吾先人歿今四十年而墓碣無文予吾友也與吾游久必能道吾父事敢微惠于子余辭不獲遂敘次世系名氏事始終而銘之曰公諱昌世子興伯尹出坡平高麗太祖時三韓功臣諱莘達其鼻祖也後四世而諱權相肅宗睿宗冊平戎拓地功封鈴平縣開國伯諡文肅事載之史文肅生彥頤卒官政堂文學諡文康自文康訖麗代八世世有衣冠入 國朝有諱坤事太宗用佐命功封坡平君於公七世祖曾祖諱倬耽經好學祭酒國子十餘年誘掖諸生多所成就至今稱師儒之盛必尹某云祖諱先智嘉善忠清道兵馬節度使恂恂有君子風考諱暉以世功例隸忠義衛階振威將軍妣柳氏籍文化通政大夫淵之女府院君亮之玄孫實高麗丞相車達之後公以嘉靖癸卯生生而資稟秀容儀端重弱不好弄儼若成人稍長益持以禮法羣居終日未嘗有惰容公學本經訓不事文藻餘力赴舉不以得失爲榮辱性又至孝事父母亡違志先夫人疾病索西瓜不時不得終身不忍食將軍公嘗罹疾醫言食龜肉可已方冬號泣于野手鐮求之有羣龜忽負冰而出取以供人以爲至誠所感疾比劇斷手指和藥進之得少蘇人益歎其誠孝及喪毀踰禮粥食三年廬于墓不歸朝夕祭具必躬必莅斥賣家貨樹石墓道備極其制如封殖土木靡不自力待庶母盡其道卒化囂爲順至於父母所愛畜產如父母時必以恩母舅蚤世無嗣舅妻託公以後事公生死母視之尤人所難也祭祀一遵朱文公家禮每晨焚香謁家廟意終未嘗廢與朋友交一以誠信亡簿厚崇庠疏戚也裘馬服用樂與人共之無所惜

파님을 얻었는데 아들이 없어 아우의 아들 순거로 후사를 삼았고, 측실에서 난 아들은 후거요, 3녀를 두었다. 부윤 황은 우계 성 선생의 파님과 결혼하여 남녀 여덟 자식을 두었으니 장남 훈거는 현감이요, 다음은 순거, 상거, 문거, 성거, 선거이요, 사위는 이정여와 권준이니 다 같이 종사마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이요, 측실에서 3남 1녀를 두니 민거와 경거이요 나머지는 어리다. 장령 전은 첨지윤 완의 파님을 취하여 남여 여덟 자식을 두니 장남 원거는 진사요, 다음은 중거와 숙거와 계거이요, 장녀는 진사 송시영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김황, 김광악에게 출가하고 나머지는 어리다. 서윤 훈은 첨지윤 기의 파님을 취하여 남녀 열명의 자식을 두니 장남 윤거는 감역이요, 다음은 흥거, 명거, 해거, 봉거이요, 장녀는 현감 윤형악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이시중에게 출가하고 나머지는 어리다. 찰방 계는 아들이 없어서 형의 아들 봉거로 후사를 삼았다. 증손 남녀가 모두 50여인이나 된다. 승정 임신년에 부윤 황은 귀하게 되어 비로서 가선대부가 조참판 동지 의금부사를 증직하고 부인은 정부인으로 추증하였다. 명하여 이르기를,

큰 내를 막음이여! 물이 가득 차면 반드시 넘쳐 흐르게 되고, 대나무를 심음이여! 싹이 나면 반드시 무성하게 우거질 것이요,

행적이 쌓여 나머지 남은 발이 되고, 덕이 영원하여 저축함이 됨이여,

마땅히 너희가 번성하고 후예가 준수하게 되어 남을 것이여,

그 밭 두둑이 줄지 않으리라.

승정 7년 가을 8월 일.

손자 순거 삼가 씀

12대손 이중 삼가 묘사함.

부군의 묘비 설립이 지난 승정 갑술년에 있었고 둘째 아들 문정공 황이 완산부윤으로 있을 때 세운 것이다. 지금 삼백여년이 흘렀는데 불행히도 비의 뒷부분이 가로로 틈이 갈라지고 비의 글자가 거의 마모되어 가히 영구히 전할 수 없으므로 자손들이 다시 세울 것을 의논한지 여러 해 만에, 마련하여 묘 아래 묻어 둔 것을 취하여 묘사하여 비에 새겨 좌측에 세웠다. 추상하건대 선대가 이미 정영이 것이 있어 구비를 옮기지 않아 후손에게 감동을 일으키게 하여, 소곡공이 드디어 두 비석을 나란히 세운 것이니, 이 일의 시작의 발단이 이미 구동의 선례가 있어 영원히 전하는 도리에 유감이 없도다. 아! 공의 순전한 덕과 지극한 행실이 묘지와 행장에 나타나 있으니 진실로 감히 더 증첩하여 서술하지 않겠다. 지금 다시 고쳐 세우는 일이 외람되어도 삼가 전말을 적어서 비명의 끝에 붙인다.

9대손 자창이 삼가 짓고
12대손 정중이 삼가 씀.

(역 주)

- ① 先夫人 = 先大夫人!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 종칭.
- ② 將軍公! 공의 아버지 曠이 振威將軍임.
- ③ 斬獲(참획)! 찔러 죽이거나 생포하여 잡음.
- ④ 行在所! 왕이 멀리 나가 임시로 거하는 곳.

히 갖추고, 봉분에 흙을 돋우고 잔디를 가꾸는 일을 모두 자력으로 하였다. 서모를 봉양하는데 그 도리를 다하여 마침내 사나운 성질이 순하게 변하게 하였다. 부모가 아끼어 기르던 짐승에게까지도 생존시와 같이 은혜롭게 대하였다. 외삼촌이 일찍 돌아가고 외숙모가 후사없이 뒷일을 부탁하니 친어머니처럼 보살펴 드려 사람들이 공을 어려워하였다. 제사는 한결같이 주자의 가례에 따라 새벽마다 가묘에 가서 분향하고 배알함을 끝내 폐하지 아니하였다. 벼과 더불어 사림에 한결같이 성실하고 신의 있게 하여 정이 알거나 깊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함이 없었다. 모피옷을 입거나 말을 타는데도 남과 함께 하여 아끼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 줄 때에도 자기가 궁핍해짐에 구애받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즐겨 그를 따르니 오는 것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일찍이 친구가 난을 피하여 공에게 온 자가 있었는데, 곧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그 어미가 돌아가자 빈소와 염을 해주고 관을 마련하여 장사를 치러주니, 원근에서 더욱 공의 행적을 사모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그 행실을 열거하여 말한 것이 조정에게까지 들리었으나 쓰임을 얻지는 못하였다. 임진년에 병난이 일어나 공의 나이 50에 의분이 일어, 대의를 일으켜 이웃 고을 자제들을 불러서 권유하니, 소문 듣고 소매 걷고 일어난 자가 수백 수천이었다. 드디어 깃대에 『맹세코 이 적을 멸하여 우리 왕을 저버리지 않는다.』(誓滅此賊毋負吾王) 8자를 써서 계양 하니 당시의 이 무리들을 『팔자군』이라 불렀고, 공을 쫓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무리들이 공을 추대하여 우두머리로 삼고자 하였으나 공은 이를 병법에 능한 같은 고향 사람에게 양보했다. 모든 계획은 공에게서 나왔다. 적을 참회③한 공로를 행재소④에 올렸으나 공이 스스로 공을 내세우지 않아 상을 받지는 못하였다. 이듬해 계사년에 의병장이 병에 걸리니 공이

스스로 친히 그를 구완하며 살피니 사람들은 공에게 피하라고 권유했으나 공이 『말하기를 이미 그와 더불어 일해 왔는데 위태롭다고 그를 버리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피하지 않았다. 그의 병장이 쾌차하고 오히려 공이 병에 걸렸는데 선고의 기일을 당하여 새벽에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제단을 마련하여 종일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병이 위독해져서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니, 이 해 시월 27일 노성 선영 선묘 아래 장사지냈다.

부인 청주 경씨는 고려 시종 복흥의 후예로 홍문관 부제학 혼의 따님이다. 부인은 총명하고 정숙하며 아리따웠다. 아내의 도리를 어김없이 하고, 주부와 어머니로서 유순하고 자애로웠다. 2년 뒤에 돌아가니 공의 묘 좌측에 합장하였다. 아! 공은 덕행으로도 그 복록을 얻지 못하고 장수를 누리지 못하며, 행실은 집안에서 닦아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덕이 향리에 행해졌으나 나라에서는 베풀지 못했으니, 하늘이 좋고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 할 사람에 없었는가. 내가 들으니 착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아 베풀어 그 몸에 있지 않고 반드시 그가 죽은 후에 있다 하니 윤공은 가히 착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공이 죽은 후에 남아 있는 자손에게서 그 증거를 보겠노다. 장성한 아들이 다섯이 있었으니 장남은 수이요, 다음은 황이요, 다음은 전이니 서로 잇달아 문과에 급제하여 수는 제조의 낭관을 지내고 죽산부사에서 끝나고, 황은 부윤이니 대각에 있으면서 일을 만나면 잘못을 고치도록 아뢰고 성품이 강직하여 굽히지 않으니 선비들이 중하게 여겼다. 전은 바로 사헌부 장령이 되었고, 4남 흙은 한성부서윤이요, 5남 계는 찰방이다. 2녀를 두니 장녀는 사인 박 심에게 출가하고, 다음은 현감 송희조에게 출가하였다. 부사 수는 부윤 이현배의

*윤창세 묘비

(전 액)

증이조참판 윤공 묘비명。

(비 문)

유명조선국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 윤공 묘비명병서
분충찬모입기명훈 정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겸영

경연사감 춘추관사 세자부 승평부원군 김 유 찬

문인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김광현 전

우리 임금이 즉위한지 10년 되던 해에 전주부윤 윤공이 그들
아간 아버지의 행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며 청하기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40여년이 지났는데도 묘갈에 글이 없다.
그대는 나의 벗으로 사귀지 오래인지라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말할 수 있으리니, 감히 그대에게 은혜를 구한다.』 하여 내가
사양치 못하고 드디어 여러 조상의 세계와 사실의 시종을 서술하며
명하여 이르기를,

공의 이름은 창세이요 자는 흥백이다. 윤씨는 과평에서 나왔으
니 고려 태조 때 삼한공신 신달이 그 시조이다. 이후 4세인 관은
숙종과 예종을 도와 오랑캐를 평정하고 땅을 넓힌 공으로 영평현
개국백으로 책록되었고, 시호는 문숙이니 사적이 역사에 기록되
어 있다. 문숙이 언이를 낳았는데, 벼슬이 정당 문학에 이르
고, 시호는 문강이다. 문강으로부터 고려말까지 8대를 대대로
벼슬을 하였다. 본조에 들어와 곧은 태종을 섬기어 좌명공신이

되고 과평군으로 봉하니, 공에게는 7세조가 된다. 증조인 탁은
경서 읽기를 즐기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국자감 제주로 10여년간
제생들을 이끌어 도와주어 성취한 바가 많아 유학의 스승으로 훌륭
한 이를 일컬을 때는 반드시 윤 아무개라 말한다. 할아버지인 선
지는 가선대부의 품계로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지냈고, 진실로 군
자의 기풍이 있었다. 아버지는 돈이니 조상의 음덕으로 충의위에
예속되고 진위장군 품계를 받았다. 어머니는 유씨이니 관향은 문
화요 통정대부 연의 따님이고, 부원군량의 현손으로 실로 고려
승상 차달의 후예이다.

공은 가정 계묘년에 태어났다. 공은 자품은 순수함이 빼어나
고, 용모가 단정하고 장중하며, 몸이 약하여 장난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의젓함이 어른 같았다. 점점 자라면서 예법을 지키고
여럿이 함께 종일 지내도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공의 학문은 정전
의 가르침에 근본을 두고 글짓기를 일삼지 아니하고, 여력으로
과거에 응하고 합격, 불합격으로 영욕을 삼지 않았다. 공의 성
품은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를 섬기는데 뜻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선부인①이 병중에 있을 때 수박이 먹고 싶다고 했으나 제철이 아
니어서 얻지 못하였으므로, 평생 차마 그것을 먹지 않았다.

장군공②이 일찍이 병에 걸렸는데 의원의 처방이 거북고기를 먹
으면 나으리라 하여, 때가 겨울인데도 울면서 들에 나가 삽으로
땅을 파니, 여러 거북이 일음을 깨고 나왔다. 이를 잡아서 공양
하니, 남들이 이는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하였
다. 다시 병이 위독하니 손가락을 베어 피를 약에 타서 드려,
병이 조금 나으니 사람들이 더욱 그 효성에 탄복하였다. 상사를
당하여 슬픔으로 몸이 여윈이 예에 넘치고, 삼년 동안 죽만 먹으
며, 묘 앞의 여막에서 내려오지 않고, 조석으로 몸소 제물을 갖
추어 지냈다. 재산을 팔아 묘 앞에 비석을 세워 그 제도를 극진



윤창세 묘비



윤창세 묘비

7. 윤창세(尹昌世) 묘비

소재지 -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연월일 - 서기 1634년(인조 12년, 갑술)

찬자 - 김 류(金 瑬)

서자 - 윤순거(尹舜舉)

전자 - 김광현(金光炫)

비신 - 높이 - 212 cm

폭 - 82 cm

두께 - 27 cm

자경 - 전액 - 5 cm

비문 - 1·8 cm

석질 - 대리석

윤창세 묘비는 병사리 입구인 저수지 옆에 세워져 있다. 이수와 사각 좌대에 복연이 조각된 농대석 위에 세워진 풍비로 전액과 명을 갖추고 있다.

비문을 지은 김류는 순천인으로 여물의 아들인데 호는 복저이고 류근의 사위이다. 영의정을 지냈으며 정사일등공신 승평부원군으로 봉해지고 시호는 문충이며 인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글도 잘 지었으며 필법이 뛰어나 과천의 양응락 묘표를 쓰기도 했다.

비문을 쓴 손거는 창세의 손자로서 필법이 처음엔 청송 성수침에게서 배웠으며 나중에 사계 김장생에게 수학하였다. 그의 글씨로 된 금석문으로는 철원의 심원사, 취운당 대사비, 윤수의 묘표, 성혼의 갈과 그의 신도비 음기 등이 있다.

전액을 쓴 김광현은 안동인으로 호는 수북이며, 이조참판을 지냈고, 전서와 해서를 잘 썼다. 그가 쓴 금석문으로는 홍주 청난

비, 민기 신도비, 이탁 비의 전액이 있다.

윤창세는 승지 돈의 아들로 자는 흥백이요 호는 효렴이며 충의위 진위장군을 지냈다. 그는 효성이 지극했으며 충의가 깊어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출정하여 진중에서 전사하였다.

皆幼側子始生武科僉使女爲大司憲鄭弘溟妾始生子藁女幼鄭亦有子泣焉銘曰坐于世家早學鵠原懿茲器識則見淵源誰之不
如有征無亨牛刀鷄割積厚施輕無後爲大壽又不長孰主張是天道茫茫鬱彼佳城先兆相望我銘斯石庶闡幽光
從孫崇政大夫判中樞府事金 集撰

德 恩

宋時烈書

己巳三月 日建。

* 金公輝 墓碑

(前面大字)

有明朝鮮通政大夫行坡州牧使金公公輝之墓

淑夫人丹陽禹氏附左

(四面碑文)

集之王代父之弟兩公俱以才諳見於世歸美者咸曰人樂有賢父兄故通政坡州牧使公是其一也始公季未強仕李文成先生秉銓壬午選補青巖察訪未幾棄歸歲甲申至庚寅三爲金吾郎再拜司圃別坐或以都監郎仍仕本署或因鞫廳啓還入金吾亦見其才望之異也終自金吾辛卯陞尙衣主簿秋出監尼山縣旋遞癸巳拜振威縣令縣甫去大亂酷被凶饑公蘇活惟勤俾無捐瘠旣歷刑曹佐郎楊根郡守戶曹正郎除鳳山郡守未赴而換嘉山丙申歲也當天兵搶攘能治煩濟艱算無遺策越二年因事罷朝議惜之欲再遣而不果庚子由備局郎移翊衛司司禦拜中和府使又換仁川纔再期不樂在官病遞癸卯甲辰間連拜善山府使星州牧使林川郡守因公私故并不赴俄授坡州牧使不久而免自是沉淪散秩數三歲爲郎於宮闕都監因遷軍器副正庚戌拜沃川郡守翌年秋罷還壬子錄都監勞陞通政階癸丑因金悌男獄禍及門藁戒心屏默惟以局戲自遣而已乙卯春寢疾考終于家距生季庚戌爲六十六初葬楊州地後以宅兆不利遷厝于連山縣牛頭里庚坐原寔先壟也去贊成公墓一里許淑人禹氏附焉公天性仁和器宇峻秀論議疎暢士友傾心與兄弟友睦於門親懿行多人所難者爲官內外常爲官長所重去後愈見稱思吏民愛戴追頌在在然也早失父母又喪伯氏常以仲僉知公在遠未同居爲終身之恨焉公諱公輝字景明金姓光州人高祖諱國光左議政光山府院君曾祖諱克忸大司諫 贈參判光原君祖諱宗胤郡守 贈參議考諱鎬縣監 贈贊成妣 贈貞敬夫人全義李氏正郎諱光元之女也公之氏族世德具載王代父碑文及諸大父表碣可相徵也禹氏丹陽望族忠靖公丹陽伯諱玄寶之八代孫正郎諱治洪之女先公一季生後公六季卒柔嘉有婦度事姑孝奉君子無違德家道之正有由然矣公無子子兄司議公子義生生五男曰柴棠栽來聚女二人幼柴二男棠二女栽一女

스럽게 여겼다.

공의 이름은 공휘이요 자는 경명이며 성은 김씨요 광주인이다. 고조인 국광은 좌의정 광산부원군이요, 증조는 근욱이니 대사간이요 증 참판 광원군이다. 할아버지인 증 윤은 군수인데 증 참의이요, 아버지는 호인테 현감을 지내고 증 찬성이요, 어머니는 증 정정부인이니 전의 이씨 정랑 광원의 따님이시다. 공의 세계와 대대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덕화는 할아버지 비문과 여러 큰, 작은 아버지의 묘갈에 갖추어져 실려 있어서 서로 충분히 고증할 만하다. 우씨는 단양의 명망 있는 집안이요 충청공 단양백인 현보의 8대손, 정랑 치홍의 따님이다. 공보다 일년 앞에 출생하여 공보다 6년 뒤에 돌아갔다. 부인은 언행이 부드럽고 고우며 부인의 법도를 갖추어 시어머니를 섬김에 효도로써 하고 군자를 받들며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으니 집안의 법도가 바로 섰기 때문이다. 공은 자식이 없어 형인 사의공의 아들의 의생을 양자로 삼아 다섯 손자를 두니 시, 채, 재, 래, 취이요 손녀 둘은 어리다. 시는 두 아들을 두고, 채는 두 딸을 두고, 재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측실에서 난 아들 시생은 무과로 첨사요 딸은 대사헌 정홍명의 측실이 되었다. 시생은 아들 거를 두고 딸은 어리다. 정홍명에게서 아들 이를 두었다. 명하여 가로대

대대로 세록을 누리는 집안에서 태어나, 영원^⑨에서 배웠도다. 아름답도다, 그 기량과 학식이여, 그 연원을 볼 수 있도다. 누구와도 같지 않은 것은, 진보만 있고 멈춤이 없도다. 소 잡는 칼로 닭을 베음이여^⑩, 두껍게 쌓고 가볍게 베풀도다. 후사 없음을 큰 일로 여기니, 수명조차 길지 못하도다. 누가 이것을 주장하는가, 천도가 아득함을. 울창한 저 아름다운 언덕이여, 선영의 묘들이 서로 바라보도다. 내가 이 비석에 명을 새기어, 돌아간 분의 광영을 천명하리라.

종손 승정대부판증추부사 김 집 찬
덕은
己巳 3월 일 세움.
송시렬 서

(역 주)

- ①찰방(察訪)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 일을 맡아보는 관아.
- ②금오랑(金吾郎)의금부 도사.
- ③별좌(別坐) 1정, 종 5품의 벼슬.
- ④도감(都監) 국장, 국혼 등 국가의 대사 때 임시로 배운 관청.
- ⑤국청(鞠廳) 역적 같은 급한 죄인을 심문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곳.
- ⑥상의원(尙衣院) 조선조 어의대를 진공하고 대궐의 재물, 보물 등을 맡아보는 관아.
- ⑦비국(備局) 비변사(備邊司)를 말하는데 군사의 사무를 관장하는 관아.
- ⑧의위사(翊衛司) 임금의 모시고 호위를 맡아보는 관청.
- ⑨영원(鵝原) 형제가 서로 돌보며 지내는 곳.
(鵝鵠雛渠飛行鳴相應以兄弟, 詩經 鵝鵠在原)
- ⑩우도계활(牛刀鷄割) 大事를 처리할 수 있는 재주를 小事이 쓰는 것을 비유한 것.
(論語 割雞焉用牛刀)

* 김공휘 묘비

(전 면)

유명조선통정대부행과주목사김공공휘지묘
 주부인단양우씨부좌

(사면비문)

나(집)의 할아버지의 아우 두 분은 모두 재주와 슬기를 갖추시고
 세상에 나오셨다. 아름다운 것으로 돌아감을 보고 모두 말하기를
 「사람의 즐거움이 어진 부형을 둔 까닭이다」 하니, 통정대부인
 과주목사공이 분이 곧 그 한 분이시다.

처음 공이 나이 40이 채 못 되었을 때에 이문성 선생(을곡 이
 이)이 이조를 맡으시며 임오년에 청암 찰방①으로 선임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사퇴하고 돌아왔다. 갑신년에서부터 경인년에 이
 르기까지 세 번 금오랑②이 되고, 두 번 사포 별좌③를 임명받았
 다. 도감랑④으로 일 보다가 본사로 들어와 벼슬하고 혹은 국청⑤
 에서 추천하여 다시 의금부로 들어오니, 역시 그 재주가 촉망되어
 남다른 것이 있음을 보겠다. 마침내 의금부에서 신묘년에 상의원⑥
 주부로 승진하고, 가을에 니산 현감으로 나갔다가 곧 그만두었
 다. 계사년에 진위현령으로 임명받아 나아가니 큰 나리를 크게
 겪고, 흉년을 당하여 기근을 혹독하게 입었다. 공은 민생을 살리
 는데 오직 부지런히 하여 궁핍함을 면하게 하였다. 이미 형조좌랑
 과 양근 군수와 호조정랑을 역임하고 봉산 군수를 내렸으나 미처
 부임하기도 전에 가산 군수로 전임된 것은 병신년이였다.

청나라가 병사를 일으켜 난리를 당하게 되니, 공이 능히 백성의
 번민스러움을 다스리고, 어려움을 구제하여 해결 못한 문제가 없

이 해 나갔다. 2년이 지나서 이 일로 파직되니, 조정에서의 의
 논의 그를 아깝게 여겨 다시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결행하지 못하였다.

경자년에 비국⑦랑으로 나갔다가 익위사⑧사어로 옮기고 중화부
 사를 임명 받고 또 인천부사로 나갔으나 겨우 2년 만에 벼슬길이
 즐겁지 않고 병이 있어 쉬게 되었다. 계묘년과 갑진년 사이에 이
 어서 선산부사, 성주목사, 임천군수 등을 임명받았으나 공적,
 사적인 일로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과주목사로 나갔다가 오래지
 않아 면직하였다. 이후로 여기저기 벼슬을 옮기고 옮겨져 다니다
 가 여러 해만에 궁궐도감의 낭관이 되고 다시 군기부정으로 옮겼
 다. 경술년에 옥천군수로 부임하고 다음 해 가을에 그만두고 돌아
 왔다. 임자년에 도감에서 수고한 공이 책록 되어 통정대부의 품계
 에 오르게 되었다. 계축년에 김제남이 감옥에 가는 화를 당하고,
 그것이 공의 가문에 미치어 마음을 경계하고 아울러 침묵하면서
 오직 바둑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소일하였다.

을묘년 봄에 병환으로 집에서 돌아가니, 출생한 경술년부터
 66년이 되었다. 처음 양주지방에 장사 지냈다가 후에 산소자리
 가 좋지 않다 하여 연산현 우두리(쇠머리) 경좌 언덕에 이장하였는
 데 이곳이 선영이다. 찬성공 산소까지는 1리쯤 떨어져 있고 숙인
 우씨도 여기에 합장하였다.

공은 천성이 인자하고 온화하며 풍채가 준주하고 의논함이 통쾌
 하고 활달해서 동료 선비들의 마음을 쏠리게 하였다. 형제와 더불어
 어우러지고 집안 친척들과 화목해서 그의 덧땀한 행실이 남들을
 어렵게 여기게 하였다. 벼슬길에 나가서는 항상 안팎으로 관장
 이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떠난 후에도 더욱 칭찬을 받았다. 아전
 들과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재직할 때나 떠나서도 한결같이
 칭송하였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또 큰형을 잃어서 항상 중형인
 첩지공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같이 살지 못함을 종신토록 한

移邇衛司司禦拜中和府使又換仁川繼再期不樂在官病遘癸卯甲辰間連拜善山府使星
州牧使林川郡守回公私故并不赴俄授坡州牧使不久而免自是沉淪散秩數三歲為解
官關都監回遷軍器副正庚戌拜沃川郡守翌年秋罷遷壬子錄都監勞陞通政階登亞回金
悖男獄禍及門孽戒心屏默惟以局戲自遣而已乙卯春寢疾考終于家距生奉庚戌為六十
六初葬楊州地後以宅兆不利遷厝于連山縣牛頭里庚坐原定先壠也去贅成公墓一里許
洲人禹氏附焉公天性仁和器宇峻秀論議踈暢士友傾心與兄弟友睦於門親懿行多又暇
難者為官內外常為官長所重去後愈見稱思吏民愛戴追頌在在然也早失父母又喪伯氏
常以仲奩知公在遠未同居為終身之恨焉公諱公輝字景明金姓光州人高祖諱國光在職
政光山府院君曾祖諱克忬大司諫 贈叅判光原君祖諱宗胤郡守 贈叅議考諱錦縣監
贈贊成妣 贈貞敬夫人金義李氏正郎諱光元之女也公之氏族世德具載王大父碑文
及諸大父表碣可相徵也禹氏丹陽望族忠靖公丹陽伯諱玄寶之八代孫正郎諱洽洪之女
先公一季生後公六季卒柔嘉有婦度事姑孝奉君子無違德家道之正有由然矣公無子子

兄司議公子義生生五男曰崇察裁來察女二人幼崇仁男察二女裁一女皆幼側子始生正
科奩使女為大司憲鄭弘溟妾始生于葆女幼鄭亦有子壯焉銘曰生于世家早學錫京繇茲

鬼識則見淵源誰之不如有征無享牛刀鵬割積厚施輕無後為大壽又不畏孰主張是天道
茫茫鬱彼佳城先兆相望我銘斯石庶闡幽光後孫崇政大夫判中樞府事金集撰德康宋時
烈書

己巳三月 日建

有明朝鮮通政大夫行坡州牧使金公公輝之墓

洲夫人丹陽禹氏祔左

集之王大父之弟兩公俱以才請見於世歸美者咸曰人樂有賢父兄故通政坡州牧使公是
其一也始公季未強仕李文成先生秉銓壬午選補青巖察訪未幾棄歸歲甲申至庚寅三為
金吾郎兩拜司圃別坐或以都監郎仍仕本署或因鞠廳啓還入金吾亦見其才望之異也終
自金吾辛卯陞尚衣主簿秋出監尼山縣旋遶癸巳拜振威縣令縣甫去大亂酷破凶饑公蘇

活惟勤俾無捐瘠既歷刑曹佐郎楊根郡守戶曹正郎除鳳山郡守未赴而檢嘉山丙申歲也
當天兵搶攘能治煩濟艱美無遺策越二年日事罷朝議惜之欲再遣而不果庚子由脩局郎



김공휘 묘비

6. 김공휘(金公輝) 묘비

소재지 | 논산시 연산면 고정리

연월일 | 서기 1629년(인조 7년, 기사)

찬자 | 김 집(金集)

서자 | 송시열(宋時烈)

비신 | 높이 | 104cm

폭 | 51cm

두께 | 15cm

자경 | 전면 | 4cm

음기 | 2cm

석질 | 대리석

김공휘의 묘갈은 팔작지붕 모양의 가첨석과 농대석을 갖춘 비이다. 묘갈의 비신은 상부가 넓고 하부가 차츰 좁아지는 조선 중기 이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비문은 종손 김집이 짓고, 비문은 송시열이 썼는데 그의 비문 글씨는 드문 편이다.

김공휘는 광산인으로 자는 경명이고, 김호의 아들이며 계휘의 아우이다. 율곡에게서 경서와 예학을 배우고 이월사, 김선원, 김청음과 교우하였다.

서기 1582년 청암 찰방을 지내고, 세 번 금오 정량을 지냈으며, 두 번 사포 별좌를 하였다. 상의원 주부를 거쳐 이산 현감을 지내고, 진위 협령을 거쳐 형조좌랑, 양근 군수, 호조 정량을 역임하였다. 파주 목사와 오천 군수를 지내고 도감을 거쳐 통정대부에 올랐다.